

드론과 로봇으로 건조하는 선박

이달의 표지 주인공



윤주하 양(천곡초 4학년)
윤재균 사우(현대중공업 해양도장부)의 자녀

드론과 로봇, “아빠를 도와줘!”

동물을 사랑해 수의사가 꿈이라는 주하 양에게 아빠 윤재균 사우는 어떤 일도 기쁘하게 해내는 '만능 척척박사'입니다.

이달의 표지에는 그런 아빠를 생각하는 주하 양의 예쁜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다가올 미래에는 선박 건조 중 힘든 작업은 드론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줘 아빠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산업용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주하 양의 바람이 현실이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주하 양의 가족에게는 최근 새로운 선물이 하나 더 찾아 왔습니다. 바로 지난달 동생 '콩이(태명)'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콩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빠를 항상 응원한다”는 주하 양의 메시지처럼, 모든 아버들이 더욱 더 힘차게 달려가는 6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대중공업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

현대중공업 문화부 홍보과 커뮤니케이션선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6~9

현대미포조선 홍보과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319

현대삼호중공업 문화홍보과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2017 · 06

Contents



14

기획 기술의 미래, 우리가 이끈다!

- 04 신기술로 미래 연다
- 08 미래를 말하다
- 10 이런 기술, 이런 미래
- 12 생활 속 신기술

기획 독립회사 탐방

② 현대건설기계

- 14 소개합니다
- 16 공기영 사장 인터뷰
- 18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 · 일

- 20 **현장을 가다**
현대삼호중공업 선행도장부 도장팀
- 24 **전시회 참가기**
2017 하노버 메세
- 26 **이달의 도전**
현대건설기계 조민관 사우의 육아일기
- 28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현대미포조선 일동회가
기술교육원 교사들에게
- 3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전시실 · 홍보영화 개편
- 32 **고객과 함께**
현대글로벌서비스 데이
- 34 **그룹사 탐방**
현대힘스
- 36 **세계를 가다**
미국
- 38 **그때 그 시절**
1977 · 1987 · 1997 · 2007년 6월

지역 · 삶

- 40 **이달의 모임**
양상블 '프레소(PRESSO)'
- 42 **울산 지역 소식**
안보 관광시설 '울산함'
- 43 **삶의 향기**
어르신 꽃바위기재단
- 44 **맛있는 이야기** 제철 맛은 '다슬기'
- 46 **만나보았습니다**
호주인 도예가 데이비드 씨
- 48 **자녀와 함께**
느릿느릿 자전거 여행
- 50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화정동 김광웅 어르신
- 52 **건강칼럼** 녹내장
- 54 **울산대학교병원 소식**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 56 **나를 만나는 시간**
비교심리

보람의 일터

- 58 **회사 주요 소식**
- 62 **그룹사 소식**
- 64 **문화 포커스**
- 66 **축구단 소식**
- 68 **트렌드 따라 잡기**
B+프리미엄
- 69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가족 공예
- 70 **현중 가족 글마당**
- 78 **사우들의 추천 도서**
- 80 **생활법률**
- 81 **만화**
- 82 **쉬어가는 페이지**
- 83 **이달의 명화**

차별화된 기술로 미래 신시장 선도한다!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과 신제품이 등장하는 오늘날,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지난 4월 사업분리와 함께 2021년까지 기술개발에 3조5천억원을 투자해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 1만명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 중심의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에 매진하고 있다.

친환경 LNG선 기술개발 속도

현대중공업은 환경규제의 강화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LNG선 관련 기술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LNG연료 추진선 관련 기술개발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LNG연료 추진선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LNG추진선용 연료탱크(모델명: HYUNDAI-HPX)' 개발에 성공했다.

LNG 연료탱크는 영하 163도(°C)로 액화된 천연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 및 수송하는 설비이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LNG 연료탱크는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LNG가 내벽에 충격을 가하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이 장점이다.

또 현대중공업은 신개념 'LNG 재기화(再氣化)시스템'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LNG 재기화시스템은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에 저장된 LNG를 기체 상태로 바꾸어 육상에 공급하는 LNG-FSRU의 핵심 설비이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새로운 재기화시스템은 응고점을 낮은 글리콜(Glycol) 혼합액을 열 매개체로 사용해 해수(海水)나 프로판(Propane) 가스를 통해 LNG를 가열하는 기존 방식보다 내구성 및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한 단계 진보한 재기화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LNG-FS-RU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대삼호중공업이 수주한 LNG연료 추진 선박

현대미포조선도 포스코와 함께 LNG 저장탱크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에 나섰다. 양사는 ΔLNG 저장탱크의 고유모델 개선 △선박용 9% 니켈강 상용화 △9% 니켈강 적용에 따른 LNG탱크 성능평가 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대미포조선의 LNG병커링선 및 소형LNG선 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LNG선 '자동 본딩 장치(Automatic Bonding Machine)'를 개발했다. 이는 LNG선 화물창에 설치되는 트리플렉스(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자동으로 시공하는 장비로, 기존 장

비에 비해 품질뿐 아니라 작업 속도가 분당 3천mm로 대폭 향상됐고, 무게도 가벼워 작업성이 개선됐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3월 러시아 소브콤플로트(Sovcomflot)사로부터 세계 최초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 연료 대비 각각 90%, 80% 이상 줄인 LNG연료 추진 대형 선박(11만4천톤급 유조선)을 수주하는 성과도 거뒀다.

원가 절감을 위한 '표준 FPSO'

현대중공업은 저유가 시대에 대응해 원가를 절감한 표준형 해양플랜트 모델을 잇달아 개발하며 활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까지 서아프리카 해상 유전에서 최소한의 설계 변경만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적용형 표준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를 개발하고, 이후 주요 해역 별로 표준모델들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부유식 설비는 과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최적화 설계'를 적용하고, 기자재 및 설계 표준화, 모듈(Module) 대형화 등을 통해 최대 30%까지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육상 가스전과 연계해 해상 LNG운송을 지

원하는 연안형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의 설계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 설비는 기존보다 육상 제반 시설을 간소화하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적용형 표준 FPSO'개념도



종합 환경솔루션 제공...친환경 엔진 선도

친환경 엔진 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가스엔진을 개발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이중연료엔진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엔진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유해 배기가스 성분인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NOx



SCR)의 전 라인업을 구축해 모든 중대형 디젤엔진에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황산화물이나 미세 매연먼지(PM) 등도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엔진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엔진과 유해 배기가스를 최소화하는 후처리장치 등을 통해 종합 환경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친환경 수요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ICT 기반 '에너지 솔루션' 기술

현대일렉트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빌딩과 공장, 선박의 전력기기를 원격 제어하고 가동 정보를 분석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전기열가스 등 각종 에너지 시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운영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술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340억달러에서 2020년 500억달러까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에너지 솔루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디지털 기업인 PTC사와 함께 산업용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을 출시하고, 이를 적용한 전력기기 제품과 관련 기술 서비스를 '인티그릭(INTEGRICT)'이



란 브랜드로 통합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빌딩·공장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Energy Management Solution)과 선박기관 및 전력 계통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경제운항을 지원하는 '스마트십 솔루션(Smart Ship Solution)' 등 인티그릭 관련 기술을 개발했으며, 제품의 예상되는 고장이나 부품 교체 시점 등을 알려주는 예방 진단 시스템인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Asset Management Solution)'도 개발하고 있다.

원격으로 건설장비 관리제어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4월부터 차세대 건설장비 원격관리시스템인 '하이메이트(Hi-Mate) 2.0'을 탑재한 건설장비들을 출시하고 있다.

'하이메이트 2.0'은 웹사이트를 통해 장비 가동상태 조회 및 분석은 물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디서든 건설장비의 엔진과 공조장치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도 여러 대의 장비를 한 번에 가동시키고 실내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 겨울철 장비 예열 등으로 장시간 소요되던 작업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료잔량을 비롯해 가동률, 부품 교환 주기 등의 분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추가했다.

현대건설기계는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진단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이메이트의 성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OLED 공정용 '진공로봇'

최근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TV와 모바일 기기 등에 사용되는 화면 표시장치다. 기존 디스플레이에 비해 가볍고 전력 소모도 적으면서, 선명하고 효율이 높아 '꿈의 화면'이라고도 불린다.

이 OLED 제조 공정에는 진공로봇과 고하중, 고정정 로봇이 필요한데, 앞으로 OLED 관련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로보틱스는 본격적으로 OLED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6세대 진공로봇과 고하중로봇 프로토타입(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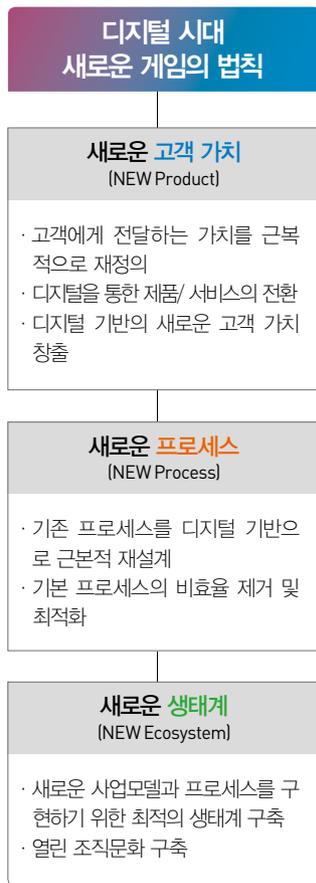
품)을 개발했으며, 올해 라인업을 갖춰 본격적으로 진공로봇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OLED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8세대와 11세대용의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로보틱스는 이밖에도 도장로봇과 반도체용로봇, 협업로봇 등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고객사별로 특화된 로봇생산시스템을 고객사와 함께 개발·적용하는 로봇시스템 사업에 진출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전쟁,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이 승리의 열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이달 ‘미래를 말한다’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현대중공업그룹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 필요

조선업을 비롯한 엔진, 건설기계, 전기전자 등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또한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등 인건비가 싼 신흥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쉽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해운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유례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경기가 나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속 가능한 회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 해답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찾고, 새로운 고객 가치(New Product), 새로운 프로세스(New Process), 새로운 생태계(New Ecosystem)로 사업 구조 전반을 변화시켜나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쉽게 말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과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제품 판매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하면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을까를 가장 큰 과제로 삼고 고민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산업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이른바 '빅데이터'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그것들을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녹여내는가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생산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인프라 혁신과 함께 의식도 변화야

현대중공업그룹은 본격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최근 전문 디지털 경영인(CDO)을 영입하고, 그룹사 차원의 환경 구축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각 그룹사에 디지털 조직을 신설하고,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신설된 조직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제품-생산 전문가가 디지털 산업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문화가 점진적으로 사업장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디지털 시대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조직과 개인이 수평적으로 협력,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리스크를 수용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회사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환경 조성을 통해 이러한 변화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를 육성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기업의 생사 결정

디지털화로의 전환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사들 역시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인 엔진 메이커인 GE, 바르질라 등을 시작으로, 현대일렉트릭의 경쟁사인 ABB, 건설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CAT, 고마즈 등 글로벌 업체들은 제품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솔루션 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며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오늘날,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절치부심의 각오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 문화 정착

실험과 속도 중시



- 적극적이고 실험적인 문화 정착
-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수립

리스크 수용



- 리스크를 수용하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문화 정착

협력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 성공사례에 대한 공유 및 지원/협력하는 문화 창출
-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환경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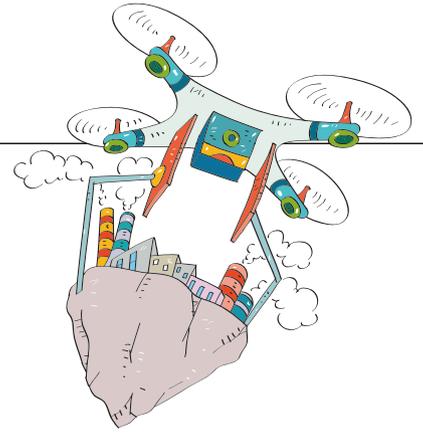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 분석
- 시스템 활용 강화
- 데이터 분석가 육성

글 현대중공업 ICT기획팀

〈다음 호에서는 각 사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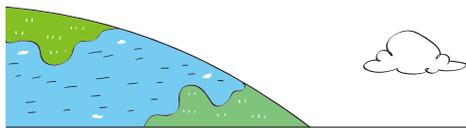


미래를 바꿀 '이런 기술' 어떤가요?

영화 '백투더퓨처(Back to the future)'는 미래에서 날아온 주인공이 집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음성인식으로 오븐을 작동시키며, 드론을 이용해 사건을 취재하는 등의 장면이 나온다.

당시에는 '상상이 아닌 공상'으로 여겨졌던 영화 속 아이디어들이 이제는 실제로 현실이 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30년 뒤 우리의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 사우들이 상상하는 미래 이야기에 한 번 귀를 기울여 보자.



로봇의 눈으로 불량품 잡아낸다!

황승호 사우 (21세, 현대건설기계 조립부)

건설장비 생산 라인 위에 설치해 초음파 검사를 하는 투시 로봇이 발명되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만든 직후 바로 불량 여부를 확보하고 해결 방법까지 나온다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저희 굴삭기가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 투입되는 일이 많은데, 드론을 조종하듯 원격으로 굴삭기를 조종할 수 있다면 현장 작업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대 대신 '수면 캡슐'

천해식 사우 (30세,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미래에는 누구든 '꿀잠'을 잘 수 있는 '다가능 수면 캡슐'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이나, 바쁜 일로 수면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이 이 캡슐에 들어가면 잠깐만 잠을 자도 피로가 확 풀리는 겁니다. 여기에 '수면 학습' 기능까지 있다면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미리 입력해둔 학습 자료들이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다면 획기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지킴이 무인 선박

박수지 사우 (27세, 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

선박에 GPS를 탑재해 원하는 장소까지 선원, 승무원 없이 항해하는 '자율 운항 무인 선박'이 대중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박이 화물을 운반하는 것은 물론 바다에 버려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경도 지키고 더불어 선원들의 고단함도 덜 수 있는 '환경지킴이 자율 운항 무인 선박', 마치 집안을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처럼 자유롭게 바다를 누비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무선 용접기로 실용성과 안전성 확보'

이민경 사우 (37세, 현대중공업 특수선생산3부)

선박에 들어가는 용접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도구를 챙기고 작업을 준비하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선 용접기가 개발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자가 케이블이나 전선에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어서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봇틱스가 바꾸는 생산의 미래

김광필 기원
(44세, 현대로봇틱스)

미래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과정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로봇틱스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제품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더욱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선박 건조를 돕는 만능 ‘안전 슈트’

강태원 과장
(34세,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 슈트’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슈트처럼 말이죠.

이 안전 슈트를 입으면 춥든 덥든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무거운 물건도 번쩍 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눈앞에서 블록과 관련한 정보를 볼 수 있고, 현장의 동료들과 통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선박

이경춘 주임연구원
(32세, 현대중공업 의장시스템연구소)

무선 계측 및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해 선박과 해양플랜트 분야에 적용된다면 장비 운영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 설치 등의 공정이 사라져 유지 및 보수가 간편해지고, 선박이나 해양플랜트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주변 장비와의 통신하며 스스로 오류를 복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D프린터로 자재와 부품을 똑딱!

이상훈 사우
(24세, 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생산부)

3D프린터가 생산 현장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작업 현장 곳곳에 도입된 3D프린터로 순식간에 간단한 자재와 부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낸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량 자재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이 인도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면 고객들과도 높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티백 하나로 나트륨 걱정 끝!

문태준 사원
(28세, 현대E&T)

저는 요즘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염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질 수 없는 회식이나 선약이 생기면 고비가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나트륨이 가득 든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 추출 티백’이 발명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찌개나 전골 등 국물이 있는 요리에 티백을 담가 놓으면 소금기를 빨아들여 기호에 맞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팔다리가 되어 줄 장비 개발

이상현 대리
(35세, 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가상현실(VR) 안전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사우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VR장갑이나 VR신발, 보행이 가능한 런닝머신 형태의 VR 장비가 개발된다면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데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더욱 현실감 넘치고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F영화 속 장면들이 현실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빅데이터...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획기적인 신기술들이 어느새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우리의 일상을 바꿔나갈 신기술들을 소개한다.

하늘을 나는 車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가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 키티호크사, 최근 이 회사가 개발한 '플라잉 카(Flying Car)'의 시연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화제가 됐다.

이 영상에는 프로펠러 8개를 장착한 약 100킬로그램의 플라잉 카가 호수 위에 떠 있다. 바닥에 부착된 프로펠러를 이용해 수직으로 이륙한 플라잉 카는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전후좌우와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 자동차는 물 위에서 약 15피트(약 4.5미터) 떠올라 큰 원을 그리며 마치 제트스키를 공중부양시킨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행하며, 최고 시속은 40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키티호크는 올 연말에 이 차량의 시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기업 우버도 3년 내로 하늘을 나는 '플라잉 택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빌딩의 옥상 헬리콥터장이나 플라잉 택시 이착륙이 가능한 지상에서 비행택시를 호출하면, 복잡한 도심에서 30분 가량 걸리는 곳을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

뇌(腦)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전기자동차 선두 업체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뉴럴링크'라는 바이오기술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뉴럴 레이스(Neural Lace)'라는 칩을 이식해 인간의 뇌신경과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초소형 인공지능 칩이 인간의 뇌에 이식되면 사람의 생각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즉 사람의 생각이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고, 컴퓨터 속에 있는 정보가 사람의 뇌로 곧장 전송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 역시 사람의 뇌파를 읽어 단어를 입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미래연구소 '빌딩8'의 책임자 레지나 듀건 수석부사장은 지난 4월 페이스북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뇌파만을 사용해 1분에 단어 100개를 입력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 장애인인 직접 뇌파를 이용해 1분에 10개 단어를 완성하는 '브레인 마우스'가 시연돼 관심을 끌었다.

미래학자이자 구글 인공지능 개발 담당이사인 레이먼드 커즈와일 역시 "2030년 안에 사람의 두뇌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사고'를 하게 될 것이며, 이런 기술들은 10여년 내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Block chain)은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각종 정보를 암호화해 네트워크 참여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분산, 보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보를 블록 조각처럼 분산해 보관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기술 덕분에 조만간 간편하고 안전한 블록체인으로 공인 인증서가 대체되고, 전 세계 은행의 송금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묶이면서 2~3일 이상 소요되던 해외송금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금융 분야의 혁신적 변화를 불러올 블록체인은 이제 제조, 유통, 공공서비스 등 타 산업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해 각종 식품의 유통 경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 안전 협력센터'를 신설했으며,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MAERSK)도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물류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전국 모든 병원에서 개인의 의료기록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처음 찾는 병원에서도 개인의 병력을 바로 파악하고 맞춤 처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현장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통해 원재료부터 완제품 공급까지 전 단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무궁무진한 변화가 예상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다!

페이스북,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증강현실(AR)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의 이미지와 배경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지난 4월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CEO는 증강현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식, 나아가 모든 기술을 바꿔놓을 중요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식당 간판을 비추 음식의 가격과 평점을 확인하거나, 증강현실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면 거실 탁자 위에 체스판을 띄워 멀리 있는 친구와 체스를 두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가 원하는 증강현실 글라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다"면서도, "머지 않은 미래에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도 이미 수년간 증강현실 관련 기술 업체들을 인수해 왔다. 팀 쿡 애플 CEO도 공식 석상에서 증강현실이 애플의 중요한 미래기술이 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하기도 했다.

구글도 증강현실 플랫폼 '탱고'를 개발하고 있으며,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로부터 14억 달러를 투자 받은 매직리프도 연내 증강현실 글라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증강현실 헤드셋 '홀로렌즈'의 개발자 버전을 출시했다. 자동차 회사 볼보는 이 홀로렌즈를 이용해 가상의 자동차 소름을 만들었으며, 일본항공(JAL)은 비행훈련을 하거나 승무원이 엔진정비 실습을 할 때 홀로렌즈를 활용하고 있다.



세계 시장 회복 순풍 타고 ‘글로벌 톱 건설장비 메이커’ 꿈꾼다!

침체에 빠졌던 건설기계 시장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중국과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건설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찍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현대건설기계는 4월 1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시장의 상승세를 타고 활발한 영업을 펼치며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이 1985년 건설장비개발실을 발족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정부의 산업합리화 조치로 수출만 하는 조건부 시장 참여였다.

2년 뒤인 1987년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가 설립됐고, 이어 1988년 산업합리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내수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건설장비사업본부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중형 굴삭기 고

유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업계 후발주자인 탓에 오랜 시간 기반을 다져온 국내 경쟁사들에 비하면 유통망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렇듯 쉽지 않은 출발이었지만, 건설장비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개발 모델인 로벡스(ROBEX)시리즈를 출시하고, 적극적인 A/S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특히 1996년 중국 상주(常州)공



장, 2002년 북경법인(20톤 미만 굴삭기 및 지게차), 2004년 강소(江蘇)법인(20톤 이상 굴삭기) 등을 잇달아 설립하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에 공을 들였다.

또한 2008년 인도 푸네에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생산 거점을 마련하며 신흥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건설장비 글로벌 생산 50만대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사업 확장과 함께 매출도 꾸준히 늘었다. 1990년 1천억원 수준이던 본사 매출은 2016년 1조8천억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뤄낸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마침내 지난 4월 1일 현대중공업의 사업분리와 함께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현대건설기계는 현지 맞춤형 장비 개발과 탄탄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 2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건설장비 시장 회복세 '호재'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건설기계 시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함께 매년 약 2.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06~2011년 대량으로 팔렸던 건설장비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원자재 시장이 회복되고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함에 따라 관련 지역에서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성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현대건설기계는 조직 재정비와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에 비해 부족했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오는 2021년까지 6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굴삭기 판매



라인업과 ICT 기반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신뢰성 센터와 신차 시작실(試作室)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산라인별 비효율을 제거해 재료비를 줄이고, OEM 사업을 확대해 원가 경쟁력과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A/S로 차별화

현대건설기계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적극적인 A/S를 내세워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건설장비 원격관리시스템 '하이메이트(Hi-

Mate) 2.0의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굴삭기와 휠로더, 지게차 등에 이 시스템을 장착하면 장비의 가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어디서든 장비의 엔진과 공조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현대건설기계가 2008년 처음 출시한 하이메이트는 현재 전 세계 10만여대 장비의 엔진, 유압 장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상 여부와 적정 부품 교체시기를 알려줌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와 함께 중대형 굴삭기를 비롯해, 휠로더, 지게차, 산업차량 등 광범위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본사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한 중대형 굴삭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

또한 지게차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 34%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2023년 글로벌 톱 5 진입을 목표로, 고객들이 사고 싶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회사, 존경 받는 기업을 꿈꾸는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1등 기업 도약할 것”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 건설기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사장의 확고한 포부를 인터뷰에 담았다.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업분할 후 두 달여가 흐른 지금의 기분은 어떠신지요?

30년 넘게 글로벌 종합 건설기계 기업으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온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 본부가 지난 4월 현대건설기계(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건설기계 시장의 경우, 미국, 중국, 유럽 등 기존 시장의 수요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독자경영을 통해 신속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만큼 사업 역량 제고를 통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기술 중심의 사업 체제로 전환하고 R&D 투자 강화, 신사업 창출에 집중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독립과 함께 영업과 개발부문이 수도권에 새 등지를 틀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는 인력과 시설이 모두 울산에 편중되어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다소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분할 후 경기도 성남에 제 2의 교두보가 되어 줄 사무소를 마련, 영업과 설계, 연구개발 부문 등 일부 기능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산 관련 인원은 공장이 있는 울산에 남아 생산 경쟁력 강화에 힘을 예정입니다.

현대건설기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현대건설기계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베트남, 이란, 몽골 등 9개 신흥국에서 굴삭기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의 경우 올해 7% 수준의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돼, 인도에서 2위 업체인 현대건설기계의 인도지역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해외 진출을 시작한 결과 탄탄한 생산 인프라와 영업망을 일찌감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제품은 물론이고, ‘현대(HYUNDAI)’라는 브랜드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글

“현대건설기계는

우수한 제품과 ‘현대’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앞세워

신흥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건설기계 산업은 세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건설기계 산업은 시황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때문에 현대건설기계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업황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차량 사업을 2009년 이후 약 4배 가까이 성장시켜 포트폴리오를 강화했으며, 부품 판매, 애프터 서비스 등의 시장을 확대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건설기계의 사업 계획과 경영 전략은 무엇인가요?

올해는 영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판매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연초에 세운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이 현대건설기계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특히 노후장비 교체와 배기가스 규제로 굴

삭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쟁사에 밀려 국내 3위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반드시 국내 1위를 달성해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명품장비를 출시하고, 대리점을 대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해외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니굴삭기를 판매하는 등 글로벌 매출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대표직을 맡으셨는데,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들에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출범하는 원년에 대표이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분리가 큰 도전이겠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현대건설기계가 글로벌 건설기계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확신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꾼다는 각오로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장비의 성능과 품질은 물론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건설기계 메이커로 성장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 ‘현대의 이름을 알릴 현대건설기계의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아빠 회사 최고”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했던 봄날

현대건설기계는 직원들의 소속감과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 5월 7일 울산 본사에서 '가족초청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700여명의 사우와 가족들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5월의 청명한 하늘처럼 푸르렀던 '현대건설기계 가족초청 한마당 행사'의 모습을 소개한다.

다양한 이벤트로 재미 더해

“오늘 이 행사는 건설기계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산부문장인 박진석 상무의 인사말이 끝나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위로 사우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휠 굴삭기의 화려한 데모쇼로 시작됐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굴삭기의 모습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최고'를 외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우들은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왠지 더 특별한 느낌이 드는 듯했다.
공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족들에게 아빠가 생산하는 건설장비의 생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녹아 있었다.
 회사는 행사를 찾은 가족들을 위해 각종 레크리에이션과 축하 공연을 비롯해 페이스페인팅, 마술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마련해 재미를 더했다.
 ‘까르르’ 하는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배가 고파질 때쯤 맛있는 냄새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점심식사는 푸드트럭으로 마련됐다. 큐브 스테이크, 케밥, 새우 요리, 핫도그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각자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내와 두 딸, 매제, 조카까지 함께 행사를 찾은 성충모 사우(37세, 가공부)는 “아빠 회사에 처음 와본 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입사한 지 10년이 된 중견 사원이지만, 회사가 새 출발을 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회사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의 행사로 현대건설기계 사우들의 회사 사랑이 한 뼘씩은 자란 듯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가장의 모습이 유독 더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느껴진 하루였다.



- ① “우와~ 우리 아빠 회사다!” 사우들은 자녀들에게 아빠의 일터를 보여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 ② ‘돌리고 돌리고~’ 엄마, 누나, 언니, 여동생, 딸의 자존심을 건 훌라후프 대결도 펼쳐졌다.
- ③ “로봇 만화에서 봤어요!” 공룡처럼 거대한 굴삭기가 움직이는 모습에 여기 저기서 탄성이 이어졌다.
- ④ ‘아빠 회사 구경도 식후경’ 푸드 트럭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는 사우들과 가족들을 유혹했다.
- ⑤ “구름처럼 하얀 솜사탕 주세요” 어린 아이들의 줄이 길게 늘어 선 이곳은 솜사탕 부스! 사르르 녹는 이 맛을 맛보기 위해 늘어선 줄은 행사 내내 이어졌다.



“굳세고 오래가는 선박, 우리 손에 달렸죠”

평생을 바닷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선박은 해풍이나 파도에 의해 부식되며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도장(塗裝)'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수명은 15~20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도장만 잘해도 많게는 1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도장작업에 선박의 수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장팀의 탄탄한 실력은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과의 신뢰도 높이고 있다.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은 필수

현대삼호중공업 선형도장부 도장1팀 22명의 팀원들은 선박의 전체 도장 중 약 85%의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후행에서 이루어지는 블록과 블록의 이음새 용접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모든 도장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 선박 블록은 도장 1팀으로 오기 전에 미리 한 번의 가공을 거친다. 철판에 붙은 녹을 제거하고, 표면의 조도를 형성하는 블라스팅(Blasting) 작업이다.

이렇게 전처리를 마친 블록이 도장1팀의 손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코팅 작업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외벽에 들어가는 블록은 5~6번, 내부에 들어가는 블록은 2번 정도 코팅을 한다.

이 작업들은 에어리스(진공)펌프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이루어지는데, 매우 높은 압력으로 페인트가 분사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마지막 검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코팅 작업이 끝나면 수작업이 시작된다. 블록의 모서리나 구멍(Hole)과 같이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곳은 붓이나 롤러를 이용해

직접 페인트를 칠한다.

이때 조금의 이물질이라도 들어가면 선박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장1팀은 이처럼 까다로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탄탄한 실력을 갖춘 베테랑 팀원들은 도장표면에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특수도로 이용, 환경 관리도 중요

선박의 도장은 일반 건축물의 도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도장은 보통 수용액(水溶液)과 섞여 있는 수성도료를 이용해 작업을 하지만, 선박에는 특별한 기능들이 포함된 특수도료가 사용된다.

해수에 대한 내수성(耐水性)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크랙성(균열 방지), 내후성(耐朽性, 공기 변화에 대한 저항력) 등 구역별로 적합한 특성을 가진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인벽과 같은 외부 작업장이 아닌 도장공장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선형도장의 특징이다. 최상의 점착(粘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온도를 5~40도, 습도는 85% 이하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때문에 도장공장에는 외부의 날씨에 관계없이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출 수 있는 제습설비가 완비돼 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작업환경을 관리한 덕분에 현대삼호중공업의 도장 품질은 고객들 사이에서도 세계 최고로 꼽힌다.

활발한 소통으로 품질안전 잡는다

도장팀 팀원들은 활발한 소통으로 품질과 안전을 모두 챙기고 있다.

이들의 소통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 아침 조회시간부터 시작된다. 작업의 진행상황이나, 검사 시 발생했던 문제점 등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 내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며 개선책을 찾는다.

특히 유해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페인트를

이용해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자들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안전수칙을 제창하고, 정기적인 환기를 통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지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내에 필터기를 설치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장1팀은 회사 내에서 가장 안전한 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아차사고 일간 제안수도 상위권에 속한다.

도장1팀은 단결된 팀워크로 유쾌한 에너지를 뿜어 내는 팀이기도 하다.

팀장인 홍승철 직장(48세)은 '화합이 품질 향상을 만든다'라는 신념으로, 팀원들과 격의 없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가족들을 동반해 여행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다니다 보니 회사 선후배라기보단 형남아우 같은 끈끈함이 생겼다.

선형도장은 전체 도장 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선형도장을 철저히 해야 전체 도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원활한 선박의 인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맡은 업무를 척척해내는 도장1팀이 있기 때문이다.

'굳세고 오래가는' 선박의 수명을 책임지며 최고의 품질로 고객 만족에 앞장서는 현대삼호중공업 도장1팀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 본다.



아래는 현대일렉트릭 황병국 주임연구원이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국제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 2017'에 참석한 소감을 적은 글입니다.

디지털화에 비춰진 새로운 미래를 엿보다

“디지털화로 우리 산업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올해로 기회째를 맞은 독일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는 디지털화가 낳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자리였다. 지난 4월말 하노버에 모인 전 세계 70여개국, 6천500여개 기업들은 로봇, 산업자동화, 디지털 팩토리, 에너지 산업 등 IT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이목을 모았다.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 '인티그릭' 공개

세대 최대의 산업기술전인 하노버 메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과시하는 최고의 쇼케이스다. 특히 2013년부터는 통합산업(Integrated Industry)을 주제로 인터스트리아4.0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 산업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인터스트리아4.0의 모습과, 그것들이 창출하게 될 새로운 가치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다양

한 최신 기술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현대일렉트릭 역시 약 33평(110m²)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현대일렉트릭이 지난 4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독립하며 전력 산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음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와 함께 전시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인터스트리4.0 시대에 발맞춰 현대일렉트릭이 새롭게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었다. 디지털 효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다. 이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저장하고, 그 중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해 현장으로 다시 지령을 내려줄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러한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전력기기를 결합한 솔루션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해당 사업들을 통칭 '인티그릭(Integric)'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출시해 이번 전시에서 공개했다.

이는 제조업을 뛰어넘어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서비스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전력설비들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어 자산관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성과 알리는 뜻 깊은 자리

이번 전시회는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떨리는 첫걸음인 동시에, 나와 함께 해온 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나는 입사 후 중앙기술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화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조선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대중공업의 특성상 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팀원 대부분과 함께 전기전자사업본부로 이동해 새동지를 틀게 됐다. 그동안 연구해온 성과들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난 4월 분사 후 회사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신사업 추진에 나섰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기술박람회에서도 지금까지 연구해 온 에너지솔루션의 실적과 브랜드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꽤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차별화된 구성으로 많은 관심 끌어

전시기간 동안 지멘스(Siemens)나 슈나이더(Schneider)와 같은 전력기기 탑티어(Top Tier) 회사에서는 우리가 가진 솔루션 분야 및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의 완성도에 큰 관심을 가졌다.

또한 비슷한 경쟁사들은 전력기기 제조업에서 솔루션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고충과 우리의 솔루션을 자사의 기기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많이 문의했다.

우리는 전시장 한편에 지난해 강릉 씨마크 호텔에 구축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운전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슷한 솔루션 기술을 홍보하는 회사는 많았지만, 우리처럼 실제 사례와 효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곳은 많지 않아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 솔루션과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 등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유럽 및 동남아의 분산전원 전력시장 관계자들에게 인지도를 넓힌 것도 좋은 성과였다.

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때문에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내외적 전략 설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 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냉정한 자기(知己)로 거친 경쟁의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하노버 메세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현대일렉트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전시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동안 느끼고 깨달은 것을 현업에 잘 적용해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겠다.



글 황병국 주임연구원
(현대일렉트릭 신사업추진팀)

“우리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아빠는 뭐든 할 거야”



1일차 “아빠 일터에서 봄나들이”

따뜻한 봄날을 맞아, 아들 유준이와 함께 회사를 찾았습니다. 독립 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회사가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해준 덕분에 아들에게 아빠의 일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굴삭기 데모쇼와 마술쇼, 페이스 페인팅 등 재밌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덕분에 가족들과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아 여기가 어딘지 잘 몰랐을 유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 봤습니다. 앞으로도 유준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조민관 사우의 도전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4일차 “친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유준이보다 사흘 빨리 태어난 동네 친구의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주인공인 아기와 함께 유준이에게도 집중 됐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유준이의 매력에 아빠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하네요.

며칠 차이로 태어난 두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어,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야 생일 축하해!”



5일차 이유식 만들기 도전

오늘은 유준이 이유식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식육점을 운영하는 외갓집에서 구한 품질 좋은 소고기와 함께 비트, 애호박, 아욱, 양송이버섯 등을 잘게 썰어, 어린 아기가 먹기 좋도록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서툰 아빠의 요리였지만 유준이가 맛있게 잘 먹어줘 말로 다 할 수 없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가리지 않고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먹는 모습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런 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2일차 “유준이는 내게 맡을게”

오늘은 아내에게 하루 휴가를 뒀습니다.

육아에 지친 아내가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홀로 유준이 돌보기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회사 일을 핑계로 집안 일에 소홀했는데 오랜만에 집안 청소와 빨래도 했습니다.

아내가 할 때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였는데, 보채는 아이를 달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일차 “훌륭한 시민의 되렴”

대선일인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초등학생인 첫째는 기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어린 유준이는 함께 투표를 하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인증하기 위해 온 가족이 손등에 도장을 찍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언젠간 성인이 된 유준이에게 이 일기를 보여주게 된다면 ‘투표는 희망찬 미래를 밝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꼭 알려 줄 것입니다.

‘슈퍼맨’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정적인 아빠’가 대세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에서 아직까지 육아는 엄마의 영역인 것이 현실이다. 두 아이의 아빠인 조민관 사우(40세, 현대건설기계 가공부)는 5월 13일 첫 돌을 맞는 둘째 아들 유준이를 위해 매일매일 육아일기 쓰기에 도전했다.

6일차 “내일을 위해 꼭 자야돼”

야행성인 유준이를 재우기 위해 진땀을 뻘뻘 흘린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돌잔치가 있어 평소보다 일찍 자야 했지만, 계속 놀고 싶어 하는 유준이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자장가도 불러주고 안아도 줬지만 울고 찡얼거리는 유준이를 달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유준이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잠이 든 모습을 보니 절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내일은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 줄게’ 하고 다짐하며 돌잔치 전날 힘들었던 하루를 마쳤습니다.



7일차 “너는 이 세상 가장 큰 선물”

드디어 유준이의 첫 생일. 유준이가 우리 가족의 품에 찾아온 날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일련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그 작던 아이가 이제는 싱긋싱긋 잘 웃고, 서툰 걸음마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파티장과 피곤한 일정을 잘 견뎌줄까 걱정했는데 평소처럼 아빠 품에 안전하게 안겨 있어줘 참 다행입니다.

별처럼 예쁜 유준이를 처음 안은 지가 벌써 1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100점 아빠’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월만큼 깊어진 사제의情

현대미포조선 기술교육원 1기 교육생 모임인 일동회(회장 백성국)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기술교육원 교사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01년 결성 이후 16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동회와 교사들의 사제애(師弟愛)가 넘치는 현장을 들여다봤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일동회 사우들은 사보 취재가 자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퇴색시키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 했다. 매년 이어지고 있는 행사가 자칫 ‘보여주기 식’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뜻 깊은 자리를 사우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몇 차례 설득한 끝에 겨우 취재가 허락됐다.

일동회 회원들은 매년 5월이면, 평생을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기술

과 지식을 전수해주고 인생의 선배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기술교육원 교사들을 찾아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올해도 스승의 날 중식시간, 일동회 회원 22명을 대표해 회장 백성국 기원(42세)과 3명의 사우들이 기술교육원을 찾았다. 양손엔 감사의 뜻으로 건강보조식품과 화분이 들려 있었다. 고생하고 있는 후배 교육생들을 위한 아이스크림도 준비했다.

“조선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



신 스승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엔 약소한 선물이지만, 이거 드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쑥스러운 고백이 끝나자 지켜보는 사람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퍼졌다.

당시 담임교사를 했던 손진형 차장(41세)과 이경표 대리(50세)는 “초창기엔 제대로 된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던 터라 잘 가르쳐주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매년 찾아와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니 오히려 부끄럽다”며 멧쩍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선물 증정식이 끝난 뒤, 이들은 근처 중국집으로 이동해 자장면을 함께 먹으며 그 시절 기술교육원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라 격식을 차려 서로를 대했지만, 이날만큼은 애정 가득한 대화를 나누며 연신 훈훈한 분위기도 조성됐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게 한 긍정의 가르침

2000년 11월 말 1기 교육생으로 기술교육원에 입교한 이들은 오직 기술에 대한 열의 하나만으로 학습에 전념했다.

당시엔 제대로 된 시설이 채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 식당은 물론이고, 변변찮은 숙소도 없어 좁은 여인숙에서 한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다. 화장실, 교육장 등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교육생들은 ‘지금의 부족함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끈끈함이 생긴다고 했단다. 기술교육원 교사들 역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이들을 지도했다. 조선업과 관련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은 물론,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사회생활에 대한 크고 작은 지혜들도 함께 나눴다.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으로 기술교육원 1기생 52명 가운데, 30명이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했다. 시간이 흐르며 몇몇 동기가 회사를 떠났지만, 지금도 22명의 동기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열정이 넘치던 20대에 만난 일동회는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어 이제는 팀의 핵심리더이자 집안의 든든한 가장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교사들의 마음에는 뿌듯함이 가득하다.

일동회 회원들은 이제 스승의 고마운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후배들에게 또 다른 본보기가 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어릴 때 시각과 청각을 잃은 헬렌 켈러가 앤 셸리번이라는 훌륭한 선생을 만나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동회는 기술교육원에서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스승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사제 간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들의 모습이 봄날,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현장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
흘러간 세월만큼
더욱 깊어진 감사함을
전합니다.
”



눈을 즐겁게 하는 볼거리 가득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 일반 시민 등 1천440만명 이상이 다녀간,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 관광지다.

특히 2009년 3월 개관한 전시실은 정주영 창업자의 경영 철학과 생애를 비롯해, 현대중공업의 어제와 오늘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사업분리 등 그룹 내 여러 변화들을 반영해 전시실을 새 단장하고,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새롭게 단장한 전시실은 화이트와 딥블루 톤으로 세련미를 살리고, 전시물 중간 중간에 은은한 조명을 설치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로
‘시선 강탈’

현대중공업이 독립법인 출범에 발맞춰 울산 본사에 위치한 전시실과 영업용 홍보영화를 새롭게 단장했다.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로 본격적인 관객맞이에 나선 현대중공업그룹 전시실과 홍보영화를 만나 보자.

아산기념전시관



포토존



① 현대중공업 역사 및 사업소개



② 현대중공업 그룹사 소개



③ 현대중공업 세계일류상품, 신기록, 사회공헌



◀ 아산기념전시실 조감도

또한 현대중공업이 2015년 2월 노르웨이 ENI사에 인도하며 아직까지도 세계 최대 원통형 FPSO로 기록되고 있는 골리앗FPSO 등을 비롯해 새로운 전시물이 다수 추가됐으며, 700만㎡ 크기의 현대중공업 생산 야드를 그대로 재현해 놓아 눈길을 끈다.

방문객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전시실 출구에 새롭게 만들어진 포토존이다. 이곳에서는 선박의 명명식(命名式) 실사 이미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모형 도끼를 이용해 밧줄을 자르는 실제 명명식 모습을 재연해 볼 수 있어 실감나는 사진 연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독립법인들의 사업과 역사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영업력 높여

독립법인 출범과 함께 그룹 홍보영화도 리뉴얼됐다.

현대중공업 홍보영화는 헬리캠과 무빙 타임 랩스(Moving Time Lapse/시간의 흐름을 압축해 표현하는 영상 기법)와 같은 최신 촬영기술을 활용해 선박과 해양플랜트 등 거대한 구조물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더욱 웅장하고 생생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독립법인에서도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홍보영화를 제작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전기전자 기기 제작과 공급은 물론이고, 새롭게 출시한 에너지 솔루션인 '인티그리(INTIGRICT)' 등 ICT기술을 접목한 솔루션 전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의 비전을 담았다.

현대건설기계는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강조하는 비전이 담긴 영상으로 고객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해외법인 임직원과 딜러(Dealer) 등 글로벌 영업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생생함을 더했다.

대구 현풍에 새 동지를 둔 현대로보틱스는 최첨단 기업에 어울리는 신규 로봇공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또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산업용 로봇과 클린용 로봇의 생산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아내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해 온 현대중공업그룹,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 전시실과 홍보영화에는 우리 임직원들의 도전과 열정의 땀방울을 그대로 느껴진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현대중공업그룹이 써내려 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 본다.



사업 분리와 함께 새롭게 단장한 현대중공업 홍보영화는 최신 촬영기법으로 역동적인 생산 현장을 더욱 웅장하고 생생하게 담아냈다.



현대중공업 전시실 관람 안내

평일 (업무일 기준)

운영 시간 :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점심시간 12시~1시)

관람 방법

고객 방문 시 : 현중오피스에서 '회사 방문 견학 신청서' 작성

일반 관람객 : 현대중공업 홈페이지에서 견학 신청

일요일

운영 시간 :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점심시간 12시~1시)

※ 사우를 동반한 가족 및 친지만 방문 가능
(개인 승용차 이용, 사원증 지참)



현대중공업의 신규 홍보영화를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도약, 해답은 ‘고객’에게 있다

지난 4월 26일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주요 고객들을 초청해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현대글로벌서비스 데이(Hyundai Global Service Day)’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는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K해운, 대한해운, DNV-GL 등 국내외 80여개 선주-선급해운사 소속 170여명의 고객들은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사업 소개를 관심 깊게 들으며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렬한 호응을 보냈다.



친환경 기술 분야 큰 관심 받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기술이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9월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에 평형수처리장치(BWTS/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0년부터는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상한선 비율을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줄임에 따라 ‘친환경 선박 개조는 해운업계

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평형수처리장치와 황산화물 제거 장치(SOx Scrubber)의 장비 선정에서부터 구매, 설계,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도급방식(Turn-Key)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평형수처리장치인 ‘하이밸러스트(HiBallast)’와 ‘에코밸러스트(EcoBal-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고객과 함께 하는
무한한 가치창출을 목표로
고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영업력을 높이고 있다.



last)를 비롯해, 오랜 시간 조선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홍보하며 신뢰를 높였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십 통합 솔루션(ISS, Integrated Smart Solution)’ 서비스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선박의 운항 현황과 엔진-전자제어 장치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잠재된 고장을 예방, 정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주의 입장에서는 각종 기자재에 대한 이상 여부를 진단해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비나 배출가스의 양 등을 미리 계산해 최적의 운항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선박용 대형엔진 및 힘센(HIMSEN)엔진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고 있는 클레임 사례에 대한 예방방법을 소개하고, 현대오일뱅크에서 새롭게 출시한 선박용 윤활유(X-Teer)에 대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 유익한 정보들이 공유됐다.

고객과 함께 무한한 가치 창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2월 전 세계 조선사 중 최초로 융복합 서비스 전문기업인 현대글로벌서비스를 출범시키고, 선박 및 해양 플랜트를 비롯해 엔진, 박용기계, 전기전자 제어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사업 분할 이후 다양한 해운사 및 연구기관 등과 전략적 제휴(MOU)를 맺고, 그룹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선박의 유지보수는 물론, 개조, 설계까지 종합적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과 함께 하는 무한한 가치 창출을 목표로 고객들과의

스킨십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임직원들이 다수 참석해 고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서비스의 방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유니크시핑(Unique shipping)사에서 신조 수석 감독을 맡고 있는 G.K.V 씨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친환경 선박 설비 시장에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이날 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또한 SK해운 조항덕 본부장은 “현대글로벌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런 행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글로벌서비스 데이는 그 도전에 대한 답을 ‘고객’에서 찾고 있는 이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고객 소통을 위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노력, 결실을 맺다!

고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온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노력이 출범 반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스마트십 기술을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는 5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인 바흐리사와 ‘스마트십부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더욱 구체화됐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날 협약을 통해 바흐리와 함께 엔진, 발전기 등 선박의 기관 상태를 원격 감독제어할 뿐 아니라 정비시점까지 미리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스마트십 시장 진출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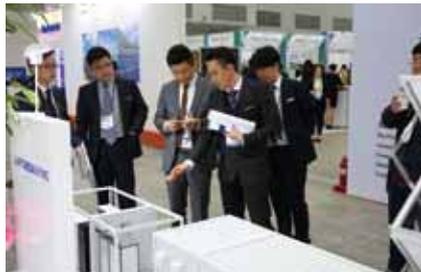
또한 5월 11일에는 쿠웨이트 AMPTC사로부터 대규모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을 수주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노력들이 이들의 앞날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

태양광 시장 선도하는 '녹색기업' 꿈꾼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원유가 엄청나게 넘쳐나겠지만,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석기시대는 끝났지만, 이것은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석유장관인 셰이크 아메드 야미니는 17년 전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 에너지의 비중은 2% 안팎에 불과하다. 적은 수치처럼 느껴지지만, 2012년 0.5%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4배나 늘어난 수치다.



태양광 분야 '토탈 솔루션' 업체로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20년 후에는 태양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양 에너지 시대'가 한 순간에 닥쳐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 시장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0조원 규모의 태양광 시장은 2030년 약 7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태양광 시장의 성장이 예견되면서 현대힘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6월 현대중공업 그룹사로 설립된 현대힘스는 태양광 인버터를 비롯해 조선 기자재, 건설장비 부품 제조 및 구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특히 2010년부터 태양광 모듈 사업을 시작한 현대힘스는, 지난해 7월부터 현대중공업의 태양광 인버터 제조 사업을 계승해 운영하

며 태양광 발전설비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 진출 이후 본격적으로 1메가와트(MW)급 대용량 고효율 인버터 개발 등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태양광 인버터 연구소를 설립하며 원천기술 확보에도 나섰다.

또한 올해 초에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사업에 진출하면서, 제품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태양광 분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 회사의 도약을 시작했다.

국제 전시회서 '주목할 만한 기업'에 선정

최근 태양광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설비인 ESS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한전계통으로 송전해주는 장치다. 이는 연평균 20~3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다.

현대힘스는 ESS용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개발 및 관련 시스템을 시리즈화 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 14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 참가해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업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시회다.

이 전시회에서 현대힘스는 주력 제품인 태양광 인버터를 비롯해 1메가와트급 대용량 고효율 태양광 ESS 패키지 제품 등을 다수의 해외 기업과 국내외의 주요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전시 기간 동안 70여개 회사가 현대힘스 부스를 방문하는 등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엑스포에 참가한 250개 회사 중 기업의 성장률과 유망성 등을 고려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 탑 5'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16억5천만원 규모의 ESS 공급 협약을 맺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현대힘스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국내 태양광 연계 ESS 시스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2020년까지 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대힘스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는 '녹색기업'으로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회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현대힘스의 ESS

'ESS(Energy Storage System)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에 송전해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현대힘스 ESS시스템은 일체형 표준 플러그인 타입으로, 자체 개발한 고효율 PCS와 PMS가 적용되고 고성능 배터리가 사용된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ESS용 고효율 인버터(100kW~1MW급)를 자체 개발해 적용했으며, ESS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PMS(Power Management System)도 자체 개발해 태양광 발전소 용량별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거대한 땅, 다양한 문화 가능성 무궁무진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일기예보가 나오자 함께 시청하던 미국인이 화들짝 놀란다.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미국에서는 전국에 동시에 비가 오는 일을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대한 땅덩어리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으로 떠나 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신규 투자 기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발각 뒤흔들었다.

‘아웃사이드’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외치며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파격적인 정책들로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건설장비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건설 인프라에 1조달러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장비 수요도 1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북미시장에서 매출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딜러망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건설장비 전시회 콘엑스포(CONEXPO) 2017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선박 및 기자재 발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미국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다. 현대중공업은 뉴저지, 휴스턴, 애틀랜타 등 총 세 곳에 미국 지사가 있으며, 2011년에는 현대일렉트릭이 앨라배마주에 연간 100여대를 생산할 수 있는 변압기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는 현재까지 미국 소재 선주사에 선박을 총 136척의 선박을 인도했으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문은 엑스 모빌(Exxon Mobil), 셰브론(Chevron) 등 미국 오일 메이저에 10기의 해양플랜트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신뢰를 쌓아 왔다.

사람과 자연이 만든 극과 극의 놀라움

미국은 대자연의 장엄한 모습과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모두 간직한 나라다. 미 서부 3대 협곡(Canyon)으로 꼽히는 사이언브라이스그랜드 캐년을 비롯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하얀 사막 '화이트 샌즈' 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돼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특히 깊이 1천500미터에 이르는 자연 협곡 '그랜드 캐년'은 죽기 전 꼭 봐야 할 절경으로 꼽히며, 석고질의 흰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 '화이트 샌즈'에서는 바이크를 타고 꿈같은 풍경 위를 달리는 특별한 체험도 해볼 수 있다.

반면, 동부의 뉴욕,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등은 화려한 도시에 대한 여행자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완벽한 장소다.

세계 문화의 중심인 뉴욕에서는 메트로폴리탄, 록펠러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듣기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명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여의도보다 규모가 큰 센트럴파크에서 도심 속 여유를 만끽해 볼 수 있다.

또한 1년 내내 선선한 날씨를 자랑하는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히는 '金門교'를 비롯해 골목과 언덕마다 다양한 공연과 시각예술로 가득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다. 이밖에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기는 수도 워싱턴,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 보스턴, 도심 전체가 거대한 테마공원인 라스베이거스 등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수많은 도시들이 전 세계인을 유혹한다.

미국에서 보내온 이야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인 만큼 볼거리, 먹을 거리, 해볼 거리가 넘치는 나라, 미국. 현대중공업 뉴저지 지사에서 근무하는 박근우 과장(44세)의 이야기를 통해 거대한 나라 미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독특하다고 느낀 미국만의 문화가 있나요?

소비의 천국'인 미국은 '반품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휴대폰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물건을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쇼핑 시즌 직후에는 각 상점들에 임시 반품 창구가 설치되기까지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반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반품을 처리해준다 보니 간혹 물품을 구입해 사용한 뒤 모두 반품하는 양체 같은 소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 반품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구입한 자동 연필깎이를 1년 정도 사용하다 최근에 고장이 나 수리를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환불을 해주지 않나?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황재를 한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한 번은 옷가게에서 한 여성이 환불을 요청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 구입한 옷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원이 "2년 전에 구입하신 물건이네요" 라고 말한 뒤 망설임 없이 환불을 해주는 걸 보고 놀란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반품 천국인 미국이지만 이걸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 물건 값에는 반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우들에게 특별한 장소나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뉴욕 맨하탄은 미국의 대표 도시로 다양한 문화, 공연, 음식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사가 위치한 북부 뉴저지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맨하탄 엠파타운에 도착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곳은 맨하탄 미드타운에 위치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입니다.

102층 높이의 건물 86층에 위치한 360도 실외 전망대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맨하탄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저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멋진 풍경을 봤다면 배를 채워야겠죠? 다운타운에 위치한 롬바르디(Lombardi's)는 미국 최초의 피자집이자 뉴욕 3대 피자집입니다. 지난해 지사에 부임한 뒤 뉴욕 3대 피자집(Lombardi's, Grimaldi's, Juliana's)을 모두 섭렵했는데, 롬바르디의 피자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112년 된 화덕에서 뜨겁게 구워져 나오는 피자를 한 입 물면 왠지 뉴욕커가 된 기분이 듭니다.

가게 내부에는 그 곳을 다녀간 수많은 유명인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니, 아는 얼굴을 찾아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우리의 도전, 새로운 역사가 되다!

10~40년 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 사회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6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국내 최초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 현대미포조선 현장 콘서트



▲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첫 자동차운반선 S288호선

2007.6

2007년 6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국내 최초로 7천6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Ⅲ)인 '세종대왕함'의 진수 소식이 실렸다.

2004년 11월 건조를 시작한 세종대왕함은 2007년 진수된 이후 해상 작전 운용시험 등을 거쳐 2008년 해군에 인도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됐다.

현대미포조선은 2007년 6월 한우리회관 앞 소공원에서 현장콘서트를 개최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열린 이 콘서트에는 30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시립예술단 관악 5중주팀이 오페라 '아이디'의 '개선행진곡'과 '나팔수의 휴일' 등 클래식 연주곡을 비롯해, '에레스뚜', '에스터데이'와 같은 인기 팝송을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달 현대삼호중공업은 6천500대 규모의 자동차운반선 S288호선을 성공리에 진수했다. 이는 한국의 해운사 EUKOR사가 발주한 선박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이 처음으로 건조한 자동차운반선이었다.

특히 이 선박의 시리즈 호선인 S291호선은 이듬해인 2008년 2월 명명식에 세계 오지 탐험가인 한비아 씨를 스폰서로 위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현대삼호중공업은 꾸준한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척의 자동차운반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1997.6

1997년 6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서해대교' 건설 공사현장을 취재한 기사가 실렸다. 서해대교는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을 잇는 사장교(斜張橋)로, 서해안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 구간 가운데 하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 공사에서 총 3개의 교대(橋臺) 기초공사를 맡았는데, 난이도가 높은 탓에 일부 전문가들도 성공 가능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임

직원들이 해상작업선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며 불철주야 작업에 매달린 결과, 2000년 11월 마침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이란 PGSC사와 2만2천DWT급 다목적선 건조를 위한 자재 공급 및 조선기술 공여 계약을 체결했다.



▲ 현대미포조선이 건조 기술 지도에 나선 이란 PGSC사 모습

특히 이 계약은 자국의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란 국영선사(IRISL) 대표단이 방한해 직접 상호 의향서를 교환해 화제가 됐다. 당시까지 이란 PGSC조선소는 3천

DWT급 소형 선박 건조에만 참여해 왔으며, 더 큰 규모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설계와 건조 기술을 지도받았다.

현대중공업은 1987년 6월 연간 278만4천톤의 강재를 생산하는 '전남 광양제철소 1기'를 준공했다.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 이 공사는 1987년 1기를 완성한 이후, 1999년까지 계속됐다. 공사 완료 후 광양제철소는 총 5고로를 갖춘 대규모 제철소로 준공됐다.

현대중공업은 1983년 5월부터 1987년 5월까지 4년간 1기 공사에 참여해 제강(製鋼), 연속주조(連續鑄造), 소결(燒結), 석회소성(石灰燒成) 설비 등 토탈 플랜트 제작을 담당하며 성공적인 공사에 기여했다.

1987.6



▲ 서해대교 건설현장의 모습이 실린 현대중공업 사보 1997년 6월호



▲ 현대중공업 사보 1987년 6월호

1977.6

1977년 6월 현대중공업 사보에서는 사우 가족과 지역 주민이 참여한 '사내 체육대회' 소식이 눈길을 끈다. 정주영 창업자를 비롯해 사우 가족, 지역 주민 등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진 이 대회에서 사우들은 축구, 배구, 탁구, 씨름 등 16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달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정주영 창업자가 '제 13대 전국경제인연합회장'에 선출됐다는 소식도 실렸다. 이후 정주영 창업자는 1987년까지 다섯 차례 정전련 회장을 연임하며, 1980년대 경제 부흥과 88올림픽 유치 등에 앞장섰다.

현대미포조선은 독일에서 노이크로스터(NEUKLOSTER)호의 선체 연장 개조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선박의 선수 철판을 교체하고, 선체 중간에 연장 블록을 놓는 등 개조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현대미포조선이 개조공사에 참여한 '노이크로스터'호



▲ 현대중공업사우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한 '사내 체육대회'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음율

클래식이라고 하면 길고 지루하기만 한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프레소(Presso)가 연주하는 클래식을 듣다 보면 '어, 이거 어디서 들어 봤는데!'하는 반가운 마음이 절로 든다.

클래식, 대중가요 등 친근한 음악 연주

'프레소'는 총 8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앙상블이다. 단원들 모두가 현대중공업그룹 HHI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소속돼 있다.

오케스트라의 악장 고문경 씨(34세)를 주축으로 음악적 스타일과 견해가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 2014년 새로운 앙상블(Ensemble)을 만들게 됐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

리넷, 플루트 등 6개의 악기가 만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화음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낸다.

'프레소'라는 이름은 'Pretty Plus Sound'라는 뜻으로,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는 단원들의 바람을 담았다.

단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관객들에게 무슨 곡을 선보일까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는 시간이다. 일반인들에게 친숙

한 클래식 곡을 위주로 하지만, 대중가요나 드라마·영화에 삽입된 배경음악 등도 연주한다.

각자 본인이 생각해온 곡들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연습실은 설레는 웃음으로 가득하다.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비슷해 단번에 의견이 모아질 때가 많다고 한다.

이들은 매달 두 번 정도 모여 연습을 한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그룹 이외에도



지역사회로 활동 반경을 넓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함께 하게 됐다. 고된 하루를 끝낸 뒤라 지쳐 있을 법도 한데, 악기만 잡으면 왠지 모를 힘이 솟는다고 말하는 이들이다.

일상을 채우는 행복한 선율

프레소 단원들은 대부분이 취미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현란한 기술이나 완벽한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끈질긴 연습으로 마침내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냈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여기에 연주를 하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연들은 덤이다. 종종 다른 연주단체들과 연합해 공연에 나서기도 하는데, 지난 4월에는 울산교육아카펠라팀과 함께 현대예술관 로비에서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프레소 팀이 연주하는 하모니 위로 아카펠라의 화음이 곁들여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프레소는 결혼식에서 신랑신부를 위한 축하 연주를 하거나, 각종 행사의 반주, 디너쇼 음악회 등에 나서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에는 꽃바위문화관에서 작은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

황윤이 사우(29세, 현대중공업 재료연구실)는 “일하느라 지쳐 있다카도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며, “일상의 식막함을 성취감과 행복으로 채울 수 있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만든 선율을 옆 사람이 만들어 내는 소리 위에 켜켜이 쌓으며 환상적인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프레소 단원들은 개개인이 현란한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침내 완벽한 하모니가 나올 때 희열을 느낀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협동심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 앙상블 연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입을 모으는 단원들.

프레소는 이러한 매력을 함께 할 새로운 단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고, 행복을 주는 음악을 연주하는 데 동참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초보자도 환영이다.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이들의 마음도 행복으로 물들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앙상블 프레소가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널리 울려 퍼져, 모두의 마음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프레소’ 가입 및 문의

: 총무 양기태 ☎ 010-5016-1083



퇴역한 국산 1호 전투함, 고향에서 안식



국산 1호 전투함인 울산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울산함 관람 정보

- 위치 :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 개방 시간 : 오전 9시 ~ 저녁 6시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관)
- 입장료 : 1천원
- 문의 : ☎ 052-256-6301

현대중공업에서 태어난 국산 1호 전투함인 '울산함'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위함으로 34년간 영해 수호 임무를 완수한 울산함은 지난 4월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옆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육상에 웅장하게 솟은 울산함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길이 102미터, 너비 11.5미터, 높이 23미터, 무게 1천890톤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다.

울산함과 연결된 계단을 올라 선내에 들어서면 운용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전투함의 내부를 볼 수 있다.

총 24억원을 들여 선체 수리와 도색, 내·외부 전기시설 정비를 마쳤다더니, 실제로 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투함에 탑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잘 정비돼 있었다. 기관실과 일부 격실 등은 보존을 위해 폐쇄돼 있지만, 관람객이 재미를 느낄만한 격실 대부분이 구경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하갑판(지하 1층)의 침실은 마네킹으로 실제 모습을 재현해 현장감을 높였다. 레이더 등으로 전술 정보를 분석하는 전투정보실, 소리로 적이나 자연물을 탐지하는 음탐실, 함장이 직접 지휘하는 함교 등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음탐실에서는 적이 쏜 어뢰의 접근을 탐지하는 소리와 고래 울음소리 등을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끈다.

또 울산함의 역사와 건조 과정 등을 소개하는 영상과 울산함 설계자 및 근무자의 인터뷰 영상, 역대 함장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외부 갑판에는 실물을 그대로 재현한 대공 레이더와 76mm 및 30mm 함포, 폭뢰 등의 무기가 멋스럽다.

실제로 군함에 타 보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울산함에서 자녀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군 장병들의 노고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뜨거운 열정으로 써내려 가는 노년의 삶



첫 인사로 환한 꽃 같은 미소를 보내주는 그들의 책상 위엔 수첩과 커피가 놓여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본인이 취재한 기사와 사진을 직접 편집하고 있는 이들은 만 61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어르신 꽃바위기자단' 단원들이다.

꽃바위기자단은 방어진노인복지관이 실버 세대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3월 결성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선발된 10명의 기자들은 1천9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방어진노인복지관의 소식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타닥타닥’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고 빠르다.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다듬고, 사진을 편집하는 모습이 진짜 기자 못지 않다.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태 어르신(66세, 2011년 현대중공업 정년퇴직)은, “노년의 삶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구축할 수 있다”며,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실버들의 모습을 기사로

담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어진노인복지관 이슬기 복지사는 “젊은이들을 무색하게 하는 꽃바위기자단의 열정과 노력에 감탄하고 있다”며, “어르신 스스로 실력을 향상시켜 노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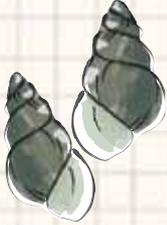
우리 지역 노인복지관의 모습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조용히 둘러앉아 삶의 이야기를 나누던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평생을 갈고 닦아 온 재능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활기가 넘친다.

당구장과 노래방, 카페 등으로 이루어진 복지관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떠들썩하고, 각각의 공간마다 북적북적한 실버들의 생활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한 편의 글로 남겨 실버세대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꽃바위기자단이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실버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한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청정 식재료’의 대명사

민물 다슬기는 불리는 이름이 많다.

큰 강줄기를 끼고 있는 여러 지역에 서식하고 있어 전라도에서는 대수리와 대사리, 경남에서는 민물고동, 강원도에서는 꿀부리, 충청도에서는 올갱이이라 불린다. 모양에 따라서도 염주알 다슬기, 주름 다슬기, 꽃채 다슬기, 참 다슬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강이나 개울이면 어디서나 다슬기를 볼 수 있어 투박한 식재료였지만, 지금은 시골이라도 ‘청정하다’고 할 만큼 물이 맑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

‘저지방 고단백’ 이색 보양식

때 이른 더위와 황사, 미세먼지까지 이겨내느라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 요즘엔 가볍지만 영양은 짙 찬 보양식이 간절하다. 매번 즐기는 고칼로리의 육고기 대신 ‘물 속의 웅담’이라 불리는 다슬기로 다가올 무더위를 신뜻하게 대비해 보자.



급 식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다슬기는 채취하는 것보다 손질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 제 맛을 보려면 채취한 다슬기를 수 차례 비벼서 껍질의 이물질 제거하고, 3시간 이상 물에 담가 해감해야 한다.

그 후 잔모래가 빠진 깨끗한 다슬기를 끓는 물에 20~30분 삶아 부드러운 살이 끊어지지 않게 일일이 살을 빼내는데, 여기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

다슬기는 옛 한의서인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도 기재될 만큼 그 효능이 높다. 특히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숙취 해소와 해독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는 기본이고, 이뇨 작용과 해열 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다슬기는 껍질이 단단하지만 속살은 부드럽다.

다슬기를 끓인 국물은 조개류를 우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 난다. 거부하지 않은 씹쓸함에 아릿한 민물의 향이 매력적이다.

다슬기를 푹 끓인 국물에 잘게 썬 부추를 넣고 소금간만 곁들이면 훌륭한 해장국이 되고, 된장을 풀어 아욱이나 시래기, 우거지를 넣으면 시원한 토장국이 된다.



탱탱한 다슬기에 밥 한 공기 '뚝딱'

바다를 끼고 있는 목포에서 다슬기를 접하기란 쉽지 않지만, 다슬기 음식 전문점인 '우리 강 다슬기'에서는 탱탱함이 살아있는 다슬기를 제 공하고 있다.



큰 도로가 아닌 곳에 있어 눈에 잘 띄는 곳은 아니지만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평일인데도 가족단위의 손님들이 많다.

다슬기를 5시간 동안 푹 삶아 낸 육수에 넣는 재료를 달리해 수제비, 떡국, 춘달떡숙 등을 만들어낸다. 다슬기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부침개와 초무침, 장조림 등의 메뉴도 준비돼 있다.

골고루 맛보고 싶은 마음에 밥과 수제비, 장조림이 한 상에 나오는 다슬기 건강밥과 삼계탕, 부침개를 시키고, 미리 내온 밑반찬들을 맛보는데 그 맛이 정갈하고 깔끔하다.

주문한 음식 위에는 다슬기 알맹이가 올망졸망하게 올려져 있다. 약간 푸른빛이 도는 국물에서 다슬기 특유의 씹새름한 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 맛이 강하지 않다. 모든 음식에 다슬기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인지 입 안에 씹히는 감촉도 제법 푸짐하다.

따뜻한 가마솥 밥 한 수저에 달짝지근한 다슬기 장조림을 올려 김에 싸먹는 맛이 간장게장에 비할만한 가치 '밥도둑'이다.

다슬기 효능

다이어트

저지방, 고단백질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시력 보호

눈의 총혈과 통증을 다스리고, 신장에 작용해 원활한 대소변에 도움을 준다.

숙취 해소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의 기능 회복을 도와 숙취해소에 좋다.

다슬기 요리 맛집

목포 '우리 강 다슬기'

찾아가는 길 : 전남 목포시 상동 901번지

연락처 : 061-279-0600

가격 : 다슬기 수제비 7천원, 다슬기 떡국 8천원, 다슬기 건강밥 1만4천원, 다슬기 대박탕 1만5천원

울산 '시골 다슬기'

찾아가는 길 : 울산 남구 돌길로47번길 40

연락처 : 052-268-0612

가격 : 다슬기 들깨탕 7천원, 다슬기 맑은국 7천원, 다슬기 비빔밥 7천원

취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호주인 도예가의 ‘뭇말리는 한국 사랑’

“헬로우” 하고 수줍은 인사를 건네니, “안녕하세요?”라는 명랑한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더니 “커피 좋아요?” 하면서 직접 만든 도자기 티팟으로 맛있는 커피를 내오기 시작한다. 호주에서 온 도예가, 데이비드 씨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도자기가 만들어 준 인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선반 위 도자기 작품들을 구경하면서 데이비드 씨의 안내에 따라 공방을 둘러보았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물레와 가마까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각종 도구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공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소한 형태의 전기가마가 눈에 띄었다. 데이비드 씨는 “색깔을 더 선명하고 예쁘게 표현해주는 가마”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데이비드 씨는 호주에서 도예를 전공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의 도예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도자기에 매력을 느꼈다.

그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울산에 ‘옹기마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흥미가 생겼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 경주 등의 도자기 문화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데이비드 씨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울산에 와서 1년 정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도자기를 배워볼 생각이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 우연히 길을 물었던 것이 인연이 돼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다고 한다. 마치 영화에 나오



는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를 듣는 듯했다. 그렇게 한국에 정착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데이비드 씨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린, 어엿한 한국인이 됐다.

본업인 도자기와 관련된 연구도 꾸준히 이어왔다. 지역 곳곳의 박물관과 축제를 부지런히 찾아다녔는데, 그 곳에서 좋은 인연도 많이 생겼다.

특히 장작 가마의 장인이라 불리는 차동기 작가와 인연이 닿아 훌륭한 멘토를 얻었다.

데이비드씨의 남다른 애정과 열정에 감동 받은 차동기 작가는 그에게 도자기 기술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혼이 서린 작품 세계,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까지 조언하며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한다.

영어도 배우고, 도자기도 만들고

유쾌한 도예가 데이비드 씨가 운영하는 공방 '페인트 앤 클레이(paint'n clay)'는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을 준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다 떨듯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도중에도 지나가던 이웃 주민을 발견하고는 뛰어나가 반갑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친근한 동네 아저씨다. 이곳에서는 1만5천원~2만원 정도의 재료비만 내면 접시, 컵, 시계, 액자 등 원하는 도자기를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다.

반제품 형태의 도자기를 채색하는 간단한 작업에서부터 직접 물레질을 하는 난이도 높은 수업까지 연령별, 수준별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어,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자기를 굽고, 영어도 배우는 1석 2조

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데이비드 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방을 찾아 멋진 도예 작품을 함께 만들어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동서양의 조화를 담은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언젠가는 시골 마을에 전통 가마를 짓고 진흙으로 도자기를 구우며 살고 싶다고 한다. 진흙처럼 정직하고 소박한 그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주소 울산 남구 문수로 445번길 12
전화 052-222-0625
홈페이지 <http://paintnclay.com>





두 바퀴로 만끽하는 그림의 행복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따뜻한 봄 햇살에 기뻐했었는데, 어느새 무더위가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가끔은 세월을 등에 진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가는 시간을 억지로 잡아둘 순 없지만, 하루쯤은 느린 방법으로 삶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굳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훌쩍 떠날 수 있는 하루일정의 나들이, 두 바퀴의 자전거를 친구삼아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울산 태화강변 자전거길

울산의 자전거 길은 크게 여섯 구간으로 나뉜다. 방어진과 주전 일대의 동구해안길, 외고산 옹기마을을 경유하는 외고산옹기종기길, 반구대 암각화 부근의 선사문화체험길, 간절곶 일대의 새희망길, 동천강길 그리고 태화강 주변의 생태체험길이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27km의 태화강 생태체험길이다. 특히 이 곳은 자전거 초보자도 쉽게 갈수 있을 만큼 경사가 완만해 인기가 많다. 평균 속도 15km로 달렸을 때 2시간 정도가 걸린다.

태화강 둔치는 어느 계절에 가도 모두 아름답다. 각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 단지를 이루고 있고, 시원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태화강이 도심에서 만나고 다와 만나는 장관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울산만의 자랑이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내달리다가도 불쑥불쑥 드러나는 멋진 모습에 자전거를 세우고 쉬게 만드는 힘을 지닌 곳이다.

태화강 자전거 대여소

- 동천, 태화강 대공원(2곳)
- 남성용, 여성용, 주니어용, 어린이용, 커플용(2인), 가족용(4인) 대여 가능
- 대여 비용(시간) : 평일 무료
 주말 1인승 1천원
 다인승 2천원 (신분증 지참)

경주 자전거 문화유적 체험투어

경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체험투어가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의 유적지를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보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주시 전체가 총 6개의 코스로 나뉘져 있는데 난이도를 고려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하루종일 이어지는 전일(全日) 체험과 오후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반일(半日) 체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오전 9시 30분에 경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의 자전거 대여소에 모여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한 다음 그날의 체험지로 이동한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 안내인이 동행해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므로 개인적인 자전거 여행보다 훨씬 안전하다.

거기에 문화해설사의 해설이 더해져 '아는 만큼 더 많이 볼 수 있는' 유적 탐방 여행이 된다. 그래서인지 가족단위의 신청자가 많은 편이다.



경주 자전거 투어

- 투어 날짜 : 매월 2회 토요일
- 접수 방법 : 홈페이지(www.gjbike.com) 통해 예약
- 체험 비용 : 반일 투어 1만원, 전일 투어 2만원
(자전거 대여료, 물, 식사, 입장료 포함)

군산 선유도 자전거길



자연이 창조해낸 수려한 해상관광공원으로 불리는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대장도, 무녀도를 자전거로 둘러보는 코스다.

세 섬이 다리로 연결돼 있어 선유도에서부터 자전거로 라이딩 할 수 있다. 특히 선유도 명사십리해변과 망주봉이 어우러진 풍경이 이국적이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없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에는 무척 좋은 환경이다.

섬에서 섬을 연결하는 다리 중 일부 경사구간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곤 대부분 평탄한 길이니 초보도 마음 놓고 자전거 투어를 즐길 수 있다. 멋진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달리는 데 2시간가량(약 18km) 걸린다.

마을에는 작은 골목길이 여럿 있으니 여유를 갖고 구석구석 돌아보길 바란다.

선유도 자전거 대여소

· 양화 자전거 대여소 : 1인승 3천원 / 2인승 6천원

전남 섬진강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은 어느 한 곳 버릴 데 없이 구간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가 숨어 있다. 봄이면 매화와 벚꽃이 흐드



러지고, 여름에는 초록이 짙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어우러져 어느 계절에 가도 좋다.

자동차 도로와 일부를 공유하지만 차량이 많지 않아 한가롭다. 하루로 갈수록 강폭이 넓어져 달리다보면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다.

코스는 곡성역을 시작으로 배알도 수변공원까지 이어진다. 거리는 길지만 경사가 거의 없어 초보자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다.

섬진강 자전거길을 달리며 멋진 풍경에 현실의 무게와 고민을 잊어 보자.

섬진강 길 자전거 대여소

- 섬진강 천문대 매점 : (1시간) 5천원
- 배알도 수변공원 유인인증센터 : 자전거 무료 대여, 무료 교육 가능

정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외로운 노년의 삶에 따뜻한 햇살 한줄 비춰졌으면...

문이 열려 있어 노크를 했더니 인기척이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어르신은 계시지 않았다. 몇 분이나 흘렀을까, “아이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하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관문 열쇠가 고장이 나 계속 문을 열고 지내다가, 손님이 온다는 말에 경비실에 가 수리를 해달라고 하셨단다.



꼬리를 물고 찾아온 불행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고 대신 해줄 사람도 없고, 미안해서 안 가려 해도 관리실을 자꾸 찾아 가게 돼.”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김광웅 어르신(79세)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르신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오래돼 말수도 줄었고, 옛날의 기억도 가물가물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에게도 행복했던 시절은 있었다. 40여년 전에는 현대 마크를 가슴에 달고 중장비 운전을 하며 건설 공사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당시 먼발치서 정주영 창업자를 봤던 기억도 있다며,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추억을 회상했다.
열심히 기술을 갈고 닦아 자격증도 여러 개 보유한 기능공이었다. 실력을 인정받아 멀리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을 왕래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산업역군이기도 했다.

결혼을 해 행복한 가정도 꾸렸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자식들 재롱에 기뻐하며 착실하게 삶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불행은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첫 아들을 다섯 살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냈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던 둘째 아들은 열다섯에 집을 나가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던 아내는 사기를 당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잃었고, 보증까지 잘못 서 가계가 무너졌다.

그 상황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던 김광웅 어르신은 이혼을 택했다.

하지만 이혼 후의 삶에는 더 큰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팔자가 얼마나 역성지,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하시며, 돌아켜보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이혼이었다고 말한다.

쇠약한 몸보다 외로움이 더 큰 고통

김광웅 어르신은 건강도 좋지 않다. 6개월 전 방광암 수술을 받았고, 이밖에도 고혈압, 불면증, 손 떨림 등 만성적인 질병과 함께 우울증도 심해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한다.

안정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다. 근교에 살고 있는 딸이 종종 들려 들여다보긴 하지만, 딸도 경제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를 돌볼 형편이 못된다고 한다.

“내가 기억이 자꾸 사라져. 어디서들 왔다고 했지?”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며 자꾸만 되물으시는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됐다.

어르신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며 떨리는 손으로 오래 된 수첩에 글씨를 써내려 갔다.

평일 점심에는 동구청에서 배달해주는 점심 도시락으로 겨우 끼니를 때운다. 하루 한 끼라도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단다.

늙어 쇠약해진 몸에 거동도 불편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다. 찾아주는 이 하나 없는 김광웅 어르신의 하루는 길기만 하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이제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는 것조차 버겁다.

창 밖으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지만 어르신의 집안에는 어둠만이 가득하다. 집안 곳곳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주변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려 본다.

취재 이승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늙어 쇠약해진 몸에
거동도 불편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다.
찾아주는 이 하나 없는
김광웅 어르신의 하루는
길기만 하다.



소리 없는 시력 도둑 방치하면 실명까지

녹내장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녹내장은 계속 방치할 경우 시력까지 잃을 수 있어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 야간 시력이 떨어진다.
-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 운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
- 이른 아침 혹은 저녁에 두통이 생긴다.
- 눈앞이 뿌옇게 변하면서 통증이 느껴진다.
- 빛을 바라보면 주위에 무리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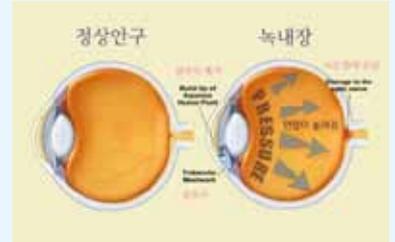
‘녹내장’은 어떤 질병인가요?

녹내장은 빛을 전달하는 시신경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이 생기면 초기에는 시야에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시간

이 지나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중심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내장은 백내장, 당뇨병 망막증과 함께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2% 정도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안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녹내장’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녹내장은 안압(眼壓) 상승에 따른 시신경의 기계적 손상과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 이상으로 인한 허혈성 손상을 대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혈압·당뇨병·심혈관 질환 및 근시를 가진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을 유발하는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정상 안압(10~21mmHg)인 경우에도 녹내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압과 관련 없이 시신경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녹내장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편두통, 손발 저림 등의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됩니다.

안압이 높아지는 이유

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눈의 모양체에서는 각막과 수정체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물을 계속 생성하고, 이 물은 방수 유출로를 통해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곳을 통해 방수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안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녹내장의 발생 원인이 된다.

‘녹내장’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녹내장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성 녹내장’은 병의 진행이

느려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대개의 녹내장은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시신경이 서서히 파괴돼, 자칫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급성 녹내장은 전체 녹내장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안압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시력 감소, 두통, 구토,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백내장은 녹내장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이고, 녹내장은 안압 등의 원인으로 시신경이 죽어 시력을 상실하는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녹내장은 급성을 제외하고 대체로 증세가 서서히 진행되며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말기가 되어야 시야가 좁아지고 답답함을 느끼며 실명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두 질환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눈 속의 압력을 높여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내장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녹내장은 안압 검사, 시야 검사, 시신경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안압 검사는 표면 마취제를 양 눈에 넣고 안압계를 이용해 각막 표면의 안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야 검사는 시야 손상이 시작됐는지, 시작됐다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검사로, 암실에서 반구형의 검사장비 앞에 앉아 시야 범위 내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는지 검사합니다.

시신경 검사는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실제 시신경에 나타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신경과 그 주위를 들여다보며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최근엔 시신경 유두의 손상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학장비가 발달하면서 시신경의 모양, 신경섬유의 두께 등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돼 녹내장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녹내장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안압 조절이 중요합니다. 안압을 낮추면 시신경 손상이 멈추거나 진행이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안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적정 안압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심해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압을 떨어뜨리는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약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난 후 수술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지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녹내장은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인과 질환이기 때문에 근시가 있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안압이 높거나,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완치되는 병이 아니므로, 이미 발병한 경우에는 시신경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압을 관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평소 꼭 끼는 옷 착용을 삼가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의 운동, 옆드려 자는 습관 등 안압을 높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글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종합 응급의료서비스로 전문성 높인다!

지난해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는 5만5천여명. 하루 평균 150여명의 환자가 찾는 셈인데, 이는 서울·경기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울산뿐만 아니라 경주, 포항, 밀양 등 인근지역에서 방문하는 환자의 수도 점점 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지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영남권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증축 공사를 마치고 5월 25일 개소식을 열었다.



응급환자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센터장: 홍정석)는 이번 증축 공사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도 보강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응급 중환자실과 외상 중환자실, 응급 병실, 외상 병실, 혈관 조영실, 헬기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용응급실, 권역외상센터가 한곳에 있어 국내 최초로 독립된 건물에 종합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오는 7월에는 소아전용응급실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이를 통해 성인과 소아, 외상환자 등 응급환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7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외상 외과계 소속 전문의 10명 등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교대진료를 실시하고, 간호인력을 대폭 늘려 더욱 섬세하고 집중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해졌다.

새로운 진료 환경에 맞춰 응급진료시스템도 보완됐다. 센터에 도착한 환자는 중증도 분류체계에 따라 진료 구역이 정해지며, 긴급을 요하는 환자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전문의가 투입된다.

신종 전염병 대응력 높여

울산대학교병원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병상 간 간격을 확보하고, 격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센터 입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입구에서부터 다른 환자들과 분리되도록 했다.

또한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을 각각 3개씩 설치하고, 공간을 구분하는 유리문에 RF/ID(무선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를 구분해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또한 소생실과 응급처치실을 센터 입구에 설치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접수 여부를 떠나 응급처치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응급환자 전용 CT실과 X선 촬영실을 구비하고, 환자의



대량 유입 상황에 대비해 최대 100여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확보해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응급실을 갖추게 됐다.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병원으로

1975년 현대중공업 부속 해성병원으로 개원한 울산대학교병원은 2012년 신축암센터 준

공, 2013년 소아전용응급실 개소, 2014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15년 권역외상센터 개소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진료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와의 동반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앞으로도 환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결실을 맺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병문안 문화, 이렇게 바꿉시다!

‘떼거리’로 찾아오는 면회객은 병원 내 감염 위험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병실에 면회객들이 뒤섞이다 보면 환자들의 휴식을 방해하고, 각종 도난사고나 이용객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울산대학교병원은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병문안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병문안 문화 개선의 핵심은 출입 통제를 통해 면회객들이 마구잡이로 병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층별로 차단문을 설치하고, 6월 한 달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달라진 병문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병문안 문화

- ① 모든 병동의 환자와 보호자는 출입증(손목형 밴드)을 발급 받는다.
- ② 일반 면회객의 병문안 허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12시, 오후 6시~8시로 제한된다.
- ③ 병실에 들어가는 면회객은 모두 병문안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④ 집단 방문객은 일부씩 교대하거나, 병실 밖 면회실 등에서 면회해야 한다.

왜

나는 계속 남과 비교하는 걸까?

“네 동생은 공부도 잘하는데, 넌 어째 동생만도 못하니?”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웬지 모를 반항심도 생긴다.
 남들과 비교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비교당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곤 한다.
 옷차림을 비교하고, 차종을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며, 집의 크기를 비교한다.
 하다못해 손에 든 ‘떡’의 크기까지 비교한다.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시작

일반적으로 비교심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유행’이다. 매년 유명 연예인이 입는 옷과 액세서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심지어는 비슷한 헤어스타일까지 유행하곤 한다. 이는 유명한 연예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닮아 가려는 심리 때문이다.

이처럼 비교심리의 궁극적 목적은 남과 같아지거나, 더 나아가 남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한계와 함정이 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남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과의 비교는 곧 경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의 전제는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는 ‘평등 의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물론 합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의의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

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대상과 자신을 무조건 똑같이 비교하려고 하는 데 있다.

객관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잣대로 남과 나의 다른 점을 자꾸 찾다 보면, 이유 없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이 생기거나 근거 없는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나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결정하는 것이 오로지 나에게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명제 뒤에는 타인을 존중하라는 함의가 존재한다.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고한 자신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



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집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통해 불행의 근원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스스로가 발전하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나
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색깔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더 느끼고, 더 즐기고, 행복해지면 된다.

글 서상숙 상담사(현대삼호중공업 마음정원)

행복하고 평온한 나를 위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01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유

먼저 비교하는 행동의 유형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는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
우와, 자신을 타인보다 우위에 두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
함한다.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는 일이 어떤 행동에서 일어나는지, 그
리고 그때의 감정은 어떤지를 적어 본다.

가능하면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을 때 즉시 적는
것이 좋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전에 했던 행동을 떠올리
며 원인을 파악해 봐도 좋다.

02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점,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자신의 장점들을 하나
씩 찾아 보면,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스스로가 훨씬 더 괜찮
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03 비교하는 생각 대체하거나 제거하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때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
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멈춰주는 것이 좋다. 대신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점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자.

또한 타인을 부러워하는 대신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타인이 당신에게 주는 이점을 생각해 보고, 그들의 성공을 동
기로 삼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
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04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기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물건도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
정하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약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최길선 회장 미얀마 현장 점검

경영진, 연휴 해외현장 점검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중 해외 공사 현장과 법인을 찾아 공정을 살피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최길선 회장은 5월 2일 미얀마 바다미야(Badamyar) 가스플랫폼 설치 현장을 찾아 공정을 점검하고, 양곤사에서 열린 인도 서명식에 참석해 발주자인 토탈(Total)E&P미얀마사 경영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권오갑 부회장은 4월 28일부터 멕시코지사, 브라질 및 미국 아틀란타법인 등 미주 지역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살피는 한편,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강환구 사장은 연휴 기간 울산에서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을 점검하고 사우들을 격려했다.

또 가삼현 그룹선박해양영업 대표와 김숙현 해양 사업대표, 정기선 그룹선박해양영업 부문장은 5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해양기술박람회(OTC) 2017'에서 오일메이커 및 해양엔지니어링 업체 경영진을 잇달아 만나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양플랜트의 수주 재개 방안을 모색했다.

해양영업-설계부문의 임직원들은 박람회와 함께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설계 표준화와 FLNG 독자 모델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오갑 부회장 미주 지역 현장 점검



사우디와 스마트십 사업 협력

현대중공업이 세계적 해운사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선사인 바흐리사와 손잡고 스마트십 사업 협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5월 7일 사우디 현지에서 정기선 그룹 선박해양영업본부 부문장과 안광현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알리 알하르비(Ali Alharbi) 바흐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흐리와 스마트십 부문 협력관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십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바흐리가 보유한 선박에 이 기술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바로니아 가스플랫폼 출항

현대중공업이 5월 10일 해양 5인벽에서 최길선 회장과 김숙현 해양 사업대표, 마주인 이스마일(Mazuin Ismail) 페트로나스 부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니아(Baronia) 가스중앙처리플랫폼 출항식'을 가졌다.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카리갈리(Petronas Carigali)사로부터 수주한 바로니아 플랫폼은 하루에 4억입방피트(㎥)의 가스 2만7천배럴(bb)의 초경질유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부터 동말레이시아 해상 가스전에서 플랫폼 설치 작업에 들어가 오는 11월까지 발주처에 인도할 예정이다.



일렉트릭, 건국대와 사업협력

현대일렉트릭이 5월 16일 건국대학교에서 주영걸 사장과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사업 추진 협정'을 체결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신재생 에너지와 기존 전력체계 등을 융합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에너지시스템으로, 중소 규모 지역단위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현대일렉트릭은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등 관련 설비들을 구축하고, 시스템 가동과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일렉트릭, 영국서 변압기 대량 수주

현대일렉트릭이 포스코대우와 공동으로 영국 국영기업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와 총 500억원 규모의 변압기 독점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400kV(킬로볼트) 및 275kV급 초고압 변압기 총 23대를 영국 전역의 변전소에 공급하게 된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내셔널그리드에 총 1천300억원 규모의 변압기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지난번 내셔널그리드와의 장기 공급에서 현대일렉트릭이 발주처의 까다로운 기술적인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며 기술력과 공사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발판이 됐다.



건설기계, 해외 우수 고객 초청

현대건설기계가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VIP 고객 초청행사'를 열었다.

현대건설기계는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 중남미 등 9개국에서 100여명의 우수 고객을 초청해 울산 공장에서 장비 생산라인과 품질관리 체계를 소개한데 이어, 음성에서 장비 시연회를 열어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감을 높였다.

또 5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중동, 아프리카 등 13개국의 우수 고객 35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글로벌서비스, 평형수 처리시스템 수주

현대글로벌서비스가 5월 1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AMPTC사와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BWTS) 개조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사는 AMPTC사가 운항 중인 8척의 선박에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인 '하이 밸라스트(HiBallast)'를 탑재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22년까지 설계부터 설치, 시운전까지 일괄도급방식(Turnkey)으로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2017년 경영현황설명회 개최

현대미포조선이 5월 15일부터 이틀간 한우리회관 체육관에서 '2017년 경영현황설명회'를 개최했다.

3차례에 걸쳐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한영석 사장이 직접 △조선 시장 △당사 현황 △경쟁력 강화방안 △Vision 2020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영석 사장은 "세계 조선 시장의 하향세가 지속되면서 일감 부족과 유류인력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및 인력의 효율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월 19일에는 각 부서별로 '전사 대토론회'를 열어 임직원들이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불우아동 돕는 '희망기업 1호' 선정

현대미포조선 임직원들이 울산지역 불우 아동의 꿈과 미래를 후원하기 위해 나섰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5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울산, 다시 희망으로' 프로젝트 선포식에서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희망기업 1호'로 선정되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4월 113명의 임직원들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정기후원을 약정하고, 지난해 2천 748명의 임직원들이 약 1년간 '천원의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 모은 2천5백여만원을 기탁하며 희망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울산, 다시 희망으로' 프로젝트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울산 MBC와 경상일보가 주관으로 울산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빈곤 계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휴기간 HVS 현장점검

현대미포조선 경영진이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기간 동안 해외법인을 방문해 활발한 현장 경영활동을 펼쳤다.

한영석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5월 4일 베트남 현대-비나신조선(HVS)을 찾아 도크 등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파견직원 및 가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HVS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점검한 뒤, 현지 직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와 고품질 선박 건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방진료실 개원

현대미포조선이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5월 17일 한우리회관에서 한방진료실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한영석 사장과 강원식 노조위원장, 황원덕 부산 동의대학교 한방병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한방진료실은 160여㎡(약 50평) 규모로 진찰실과 침구실, 환자 대기실을 갖추고 있으며, 한방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해 침뜸부항 등으로 요통,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을 주로 진료할 예정이다.

한방진료실은 동의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진료비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4월 26일, 싱가포르 선사인 센텍마린(Sentek Marine)으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0미터, 폭 60미터, 깊이 29.6미터 규모로 원유 30만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규모다. 이 선박은 고압용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최첨단 친환경 사양을 적용해 건조되며, 2019년 상반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싱가포르 현지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현대삼호중공업 경영진과 함께 유영창 노조 지회장도 참석해 수주에 힘을 보탰다.



3천억원 규모 투자유치 성공

현대삼호중공업은 프라-IPO(상장 전 투자유치)를 통해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4월 24일 국내 톱티어(Top-tier) 사모펀드인 IMM PE와 3천억 원 규모의 프라-IPO에 관한 주요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의 시장가치는 2.5조원이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가치평가를 받은 것은 향후 조선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사업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사 크레인 특별안전교육

현대삼호중공업이 5월 15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크레인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동조사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크레인 안전 작업 수칙과 점검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후에는 팀별, 협력사별로 토론을 진행하며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교육을 준비한 사우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수칙 준수 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이동식 크레인 등 중대형 장비로 인한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 개최

현대삼호중공업이 5월 10일 임직원 부모님 300여명을 회사로 초청해 효도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회사 견학과 공연, 호텔식사, 선물 증정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문균 사장과 추인산 노동조합 부지회장, 주부대학 등이 참석해 전 임직원을 대신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노사 화합과 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5월 현대호텔에서 부모님 초청 효도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 현대오일뱅크 |



무재해 900만 시간 달성

현대오일뱅크(사장: 문종박)가 업계 최장인 '무재해 900만 시간'을 달성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약 1천300일간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다른 정유사의 무재해 최장기록(810일)보다도 크게 앞서는 수치다. 현대오일뱅크는 화재, 폭발 등 다양한 사고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종합비상대응훈련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산나눔재단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출발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5월 11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수강생과 교수진, 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6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Asan Frontier Academy) 입학식'을 개최했다.

현직 비영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선발한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경영(전략, 인적자원, 재무회계, 마케팅)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사회문제 해결 및 발굴) 등 통합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은 아카데미 기간 중 해외 유수의 비영리 기관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현업 전문가와의 사례 기반학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아산병원 |



관상동맥중재시술 학술회의 개최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 심혈관연구재단과 함께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 21회 관상동맥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1995년 처음 개최된 이 학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심혈관 중재시술 교육의 장으로, 올해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등 40개국에서 4천여 명의 심장혈관 전문가들이 참가해 전문 지식을 나눴다.

학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라이브 시술 중계에는 서울아산병원은 심장내과 박덕우 부교수가 참가해 해외 석학들과의 기술 교류에 나섰다.

5년 연속 대장암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웅기)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았다고 5월 17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전국 25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울산대학교병원은 수술 사망률 등 2개 평가 지표에서 평균 99.68점을 기록하며 최상위 의료기관임을 입증했다.

한편, 울산대학교병원은 올해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4회 연속으로 1등급을 받는 등 각 부문에서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울산대학교병원 |



라이덴 랭킹서 국내 8위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하는 '2017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에서 국내 8위에 올랐다.

이는 라이덴대학 과학기술연구소가 전체 국제발표논문 가운데 인용도가 높은 상위 10% 논문을 평가한 결과로, 울산대학교는 국내 8위, 아시아 116위, 세계 649위를 차지했다.

특히 울산대학교는 '생물의학/보건학' 분야에서 국내 3위(아시아 40위, 세계 5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대학교는 전년에 비해 전체 국제발표논문 수가 6천565편에서 6천890편으로, 인용횟수 상위 10% 논문이 570편에서 586편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대학교 |



2017년 교수상 시상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허정석)가 5월 15일 동부캠퍼스 행정본관에서 '2017 올해의 교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호텔외식조리과 전유명 교수를 올해의 교수로 선정했다.

지난 2006년 9월 임용된 전유명 교수는 호텔외식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산학협력부단장과 창업교육센터장을 맡아 전공동아리를 지원하며 학생들의 요리대회 입상에 기여했다.

한편, 울산과학대는 최근 울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교육공로상을 받은 기계공학부 박서운, 유통경영과 고재중, 전기전자공학부 강중순 교수에게도 각각 표창을 전달했다.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따뜻한 위로가 있는 음악 여행

한국 록 음악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김창완 밴드가 7월 7일 현대예술관 대 공연장을 찾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산울림의 주요 명곡부터 김창완 밴드 특유의 가슴 따뜻해지는 음악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1970년대 리드보컬 김창완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록 그룹 산울림은 주옥같은 명반을 쏟아내며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97년 산울림 13집을 발표한 이후 공백을 가진 김창완은 11년 뒤인 2008년 '김창완 밴드'를 결성하며 다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김창완 밴드는 산울림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며 국민 밴드로 자리잡았다. 특히 산울림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기존 세대는 물론, 산울림을 모르는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들의 음악에는 듣는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함이 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꿈을 꾸게 하고, 고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때로는 신나게,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릴 몽클 콘서트. 오는 7월, 청춘을 노래하는 김창완 밴드와 함께 가슴 몽클한 음악여행을 떠나 보자!

Program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 창문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 어머니와 고등어 | 내게 사랑은 너무 써 | 청춘 | 회상 | 너의 의미 | 중2 | 우두두다다 | 아니 벌써 | 기타로 오 토바이를 타자 | 개구쟁이 등

※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file

김창완 밴드

1970년대 산울림을 결성하여 명반을 쏟아냈던 김창완이 결성한 밴드로 사이키델릭 록(Psychedelic Rock), 펑크 등 풍부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가슴 따뜻한 음악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통한다.



관람 정보

일시 7월 7일(금) 저녁 8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 1층 6만6천원, 2층 4만4천원



추리, 코미디, 스릴러의 짜릿한 만남



Synopsis

결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텔 506호에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철희. 아내와 이벤트 업체 직원과 함께 성공을 자축하며 와인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은 채 잠이 든다. 다음날 남편은 옆 방인 507호에서 온 몸에 피를 흥건하게 묻힌 채 깨어나는데...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507호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버린 긴박한 상황.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곳에서 아내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서서히 밝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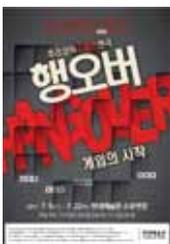
팽팽한 긴장감과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대학로를 사로잡은 연극 '행오버'가 7월 5일부터 22일까지 현대예술관 소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터져 나오는 웃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물리치기에 충분하다.

기억나지 않는 밤, 호텔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관객들과 함께 풀어가는 연극 '행오버'는 부제인 '게임의 시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 편의 추리 게임을 보는 듯한 짜릿함을 선사한다.

여기에 정신없이 스토리를 따라가다 불쑥 튀어나오는 반전 요소들이 관객들을 더욱 놀라게 한다. '추리와 '반전'이라는 열쇠로 관객들이 한시도 극에서 눈을 떼 수 없게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이 이 극의 묘미다.

탄탄한 스토리로 극강의 몰입도를 선사하는 추리극 '행오버', 올 여름 남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인물들과 함께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관람 정보

일시 7월 5일(수) ~ 22일(토)
 평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공연 없음)
 장소 현대예술관 소공연장
 티켓가 전석 2만5천원



울산현대

‘이기고, 이기고 또 이겼다!’

울산현대가 올 시즌 첫 리그 4연승을 기록하며 순위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지난달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울산은 이를 악물고 5월 한 달간 차곡차곡 승점을 쌓으며, 전북, 제주 등과 리그 상위권을 형성했다.

김도훈 감독은 수원과의 원정경기에서 승리한 뒤 “드디어 한 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ACL에서 탈락한 뒤 선수들 사이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의욕이 생겼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자신감을 되찾은 화려한 플레이로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고기도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했던가. 승리의 맛을 본 호랑이의 승점 사냥이 팬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달라진 분위기,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업!

최근 울산현대 선수들은 식사 후 한 자리에 모여 티타임을 갖고

있다. 더욱 빠르고 단단하게 ‘원팀(One Team)’을 만들기 위해 김도훈 감독이 도입한 경기장 밖 전술이다. 하지만 함께 땀 흘리고 부딪히는 소통에만 익숙했던 선수들에게 이런 티타임은 어딘가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쌓은 유대감은 곧장 그라운드 위에서 팀워크로 나타났다. 이전보다 서로의 움직임을 더욱 잘 예측하게 됐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장점이 팀의 강점으로 변화됐다. 팀으로서의 울산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다. 인천과 대구, 수원을 격파하며 리그 첫 4연승을 기록한데 이어, 브라질 출신 특급용병



울산현대 6월 경기일정

일시	상대팀	장소	비고
6/17(토) 저녁 6시	포항 스틸러스	포항스틸야드	K리그
6/21(수) 저녁 7시30분	제주 유나이티드	울산문수축구장	K리그
6/24(토) 저녁 7시	인천 유나이티드	울산문수축구장	K리그
6/28(수) 저녁 7시	상주 상무	상주시민구장	K리그

말경을 앞세워 챌린지 리그 무패를 달리던 경남 FC를 꺾고 FA컵 8강 진출에도 성공했다.

이날 경남을 격침시킨 박용우의 결승골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선수들의 집중력과 투혼의 결과였다.

6월에는 포항과 제주 등 순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경기가 울산을 기다리고 있다.

홈에서는 물론, 멀리 원정에서 들려올 울산의 승전보를 기대해본다.



이달의 선수 - GK 조수혁

'지지 않는 울산' 제게 맡겨 주세요!



빠른 판단력과 온 몸을 내던지는 투혼으로 울산의 골대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수문장 조수혁 선수를 만나보았다.

자신을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울산의 골대를 지키고 있는 골키퍼 조수혁입니다. 역대 K리그 최고의 골키퍼들이 뛰었던 울산현대인만큼 저도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최근 울산의 상승세가 무섭다. 특별한 비결이 있나?

지난 4월 전남과의 원정경기에서 5골차 패배를 당하고, 바로 이어진 ACL 가시마전에서도 큰 점수차로 패했습니다.

그 이후 선수들 사이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 생겼죠.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갚기 위해 열심히 뛰다 보니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습의 중심에 조수혁 선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웃음)타이밍이 좋았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출전한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게 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니라 팀이 강해져서 이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에 대한 갈망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로 지낸 시간이 약 8년 정도 됩니다. 프로 데뷔 후 계속 팀의 세컨드 골키퍼를 맡다보니 출전 기회가 적었습니다.

아쉬운 시간들이 이어지며 은퇴를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코치님들과 선배님들께서 제 능력을 믿어보라고 하셨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의 경험이 제게 주어진 한 경기 한 경기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골키퍼라는 포지션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어린 시절 동네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도 저는 항상 골키퍼를 맡았습니다. 축구부에서 공격수도 해봤지만, 골키퍼로서 숏을 막을 때의 희열이 더 좋아서요.

골키퍼가 가진 매력은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 중에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수비수들을 다독이기도 하고 함께 소리도 지르면서 어떠한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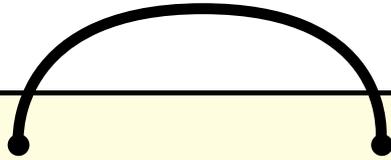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즌 초반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ACL 진출로 동계훈련도 제대로 소화 못했고, 호흡이 맞지 않아 쓰라린 패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나니 요즘의 승리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현대중공업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우 여러분들께서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 울산현대가 화끈하고 재미있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 힘찬 각오를 전하는 조수혁 선수의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 보세요!



‘가성비’에 ‘가치’를 더하다

B+Premium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성비’라는 말이 유행이다.
 이는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지불한 가격에 대비한 제품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성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B+프리미엄’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새로운
‘B+ 프리미엄’의
탄생**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소비 형태에서 좀 더 면밀히 드러난다. 가성비는 가고, B+프리미엄이 대세로 떠오른 이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렴한 가격에 양만 많은 상품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가격은 기본이고, 여기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까지도 프리미엄급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패션부터 먹거리, 가전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나
 타나고 있다.

**저가 유지하면서
차별화해야**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B+프리미엄에 주목하는 것일까?
 B+프리미엄 전략의 첫 번째는 **감각적이되 합리적인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모나미 볼펜’을 들 수 있다. 저렴한 가격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이 볼펜은 50주년을 맞아 모나미를 상징하던 기본 디자인을 탈피해 꽃 일러스트가 들어간 ‘한정판’을 출시했다.
 기존 제품보다 높은 가격이었지만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출시 이틀 만에 품절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
 다. 대중제품에 고급적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요소를 덧붙여 소비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둘째, 원재료에 대한 신선함의 가치를 내세운다.
 대중식품인 김밥, 떡볶이 등에 프리미엄 요소를 입힌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동네
 포장마차에서 싼 가격에 사먹던 간식거리들을 브랜드화하고, 좋은 식재료만 사용한다는 프리미엄 요소를 덧붙
 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셋째, 실용적 가치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출시된 세탁기 중에도 문을 열어 손쉽게 빨래를 추가할 수 있다거나, 색깔별로 빨래를 두 번 돌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하나의 세탁기에 두 개의 몸통을 만든 분리형 세탁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과거 천편일률적인 모습이던 독서실이 최근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개방형, 독립형, 스터디룸형과 같이 다양한 형
 태로 구성되며 개인의 학습 성향에 맞춘 차별화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품의 가치를
올려라!**

프리미엄의 가치가 붙은 제품에 합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과거 부유층의 삶을 선망하기만 했던
 소비가 이제는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가성비는 물론이고 그것에 ‘높은 가치’를 담은 B+프리
 미엄이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쓸수록 멋을 더하는 나만의 명품



쓸수록 그 빛과 멋을 더하는 소재로 가죽만한 것이 또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더해가는 색감과 멋스러움으로 매만질 때마다 다른 표정을 내는 가죽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소재다. 매주 화요일 7시, 한마음회관에는 가죽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이 모인다. 가죽 공예는 매달 조기마감이 될 정도로 한마음회관 인기 강좌 중 하나다. 수강생들은 주로 퇴근 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직장인들이다. 강좌는 명함지갑, 카드지갑, 여권케이스 등 간단한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 보며 가죽 공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마련된다. 5월 한 달 동안은 반지갑을 만들었으며, 6월에는 지퍼가 달린 동전지갑을, 7,8월에는 장지갑과 클러치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무엇이든 빠르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요즘, 가죽 공예는 '기다림'과 '여유'를 필요로 한다.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몇 주, 몇 달에 걸쳐 작업을 해야 완성되는 공예품도 있기 때문이다. 가죽을 붙이고 말리는 데만 반나절을 기다려야 하고, 가죽 위에 구멍을 뚫어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데도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가죽 공예는 가죽을 고른 뒤 원하는 모양에 맞춰 재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일주일에 두 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수업의 특성상 한마음회관 수강생들은 이미 재단되어 있는 가죽을 이용해 이를 가공하고 바느질해 완성하는 작업을 배운다. 보통 손바닥만 한 소품 만들기로 시작해 3~4달이 지나면 클러치나 가방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한다. 강사 권선재 씨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죽 공예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개인별로 수준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금방 따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아 완성되는 가죽 공예는 만든 사람의 숨결과 손때, 사용하는 사람의 시간까지 담고 있어 어떤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바래가는 멋스러움을 좋아한다면, 가죽 공예 강좌의 문을 두드리 보자.

한마음회관 '가죽 공예'
 시간 : 화요일 저녁 7시 ~ 9시 수강료 : 7만원/2개월 (재료비 별도)



새로운 제 2의 인생, 다시 시작된 나의 꿈

임영균 | 2012년 현대중공업 정년퇴직

저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에서 31년간 선각 곡(曲) 가공 성형업무를 전담하다가 2012년 12월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선각 곡면부 성형은 공정 특성상 자동화 기술 등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워 최근까지도 전문 기술을 갖춘 소수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분에 정년 후에도 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인 변영중공업(군산)에서 동일 직무 생산부장으로 4년을 더 근무했습니다.

그 곳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는 작은 기업이지만 생산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는 사명감을 갖고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경기 악화의 직격타로 변영중공업 조선사업부가 폐업하였고, 입사한 지 3년 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은 더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른 전환기를 맞게 돼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선각 곡직 성형분야가 전문성이 높긴 하지만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조선업계의 총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할 수도 없어 더욱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가족들이 있는 울산으로 돌아와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조선희망센터가 있는 미포복지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곳에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막막한 상황이 결코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상담사의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뜻뜻한 20~30대의 젊은 청년들까지 원치 않은 퇴

직으로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실감으로 막막해 하던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정년까지 근무하고 새로운 직장의 기회도 있었던 제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제 2의 인생 설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이상의 계속된 직장생활이 고되기도 하였지만, 근로를 통한 규칙적인 활동과 그로 인한 성취감이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어 현재의 상실감이 더 크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급여나 직무와 무관하게 빠른 재취업을 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그리고 근무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찾은 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을 창업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했고, 집 근처 초등학교의 숙직 담당으로 채용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재직 당시 바쁜 일과 중에도 짬을 내서 참여한 다물단 봉사활동과 학원폭력 예방 활동 등으로 모범 포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경력이 새로 일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현재 2개월째 학교 숙직 담당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꾸준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 꿈이 없이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두려울 것 같아 다시 한 번 용기를 내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년 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것이 제 2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연적(戀敵)



현대미포조선 신선종기술팀 김종현 과장 부인 | 박소영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오늘 낮 12시에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TV를 켜놓고 왔다 갔다 집안일을 하다가 귀가 번쩍 트인다. ‘담뱃값 인상이라니?’

볼륨을 높이고, 눈꺼풀의 미동도 허락하지 않을 태세로 뉴스를 쏘아보던 나는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뉴스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옷을 입는다.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구멍가게를 찾아가는 길에 마음은 착잡하다.

이런 마음이 왜 드는지, 가는 길 내내 알 수 없는 찜찜함에 고개를 내젓는다.

아버지는 하루에 담배를 두 갑 정도 피우시는 애연가시고, 남편도 한 갑은 거뜬하게 피는 담배쟁이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어버이날이나 아버지 생신, 크리스마스 날 카드를 쓸 때 늘 ‘아빠 담배 끊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적었다.

또 아버지가 몰래 담배를 피우러 나가시려고 할 때마다 나와 동생은 아버지께 담배 끊으시라고 얼마나 매달리고 양양거렸는지 모른다. 이 정도하면 끊으실 만도 한데 우리의 잔소리는 아버지의 귓등에도 닿지 않는 듯 했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담배를 더 사랑하는 건가?’ 하는 질투가 일다가도,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오기가 솟구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쳐갔고 애정 어린 잔소리도 줄어갔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낙인가보다 하는 애증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을 때 나는 남편을 만났다. 20대 초반에 만난 그는 군대를 막 제대한 복학생이었다. 큰 키에 체격이 좋아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다. 의자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후~’ 하고 불어내는 담배 연기는 그에게 꼭 맞는 옷처럼 그를 돋보이

게 했다. 그 어떤 액세서리도 그를 그만큼 멋지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연인이 되고 나서 나는 그와 담배를 점점 떨어뜨리려고 애쓰게 됐다.

그와 꼭 어울리는 것은 ‘나’뿐이라며 담배를 질투했다. 물론 나에게도 아버지의 애연 때문에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것을 납득시킬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담배에 대한 나의 질투심을 최고의 사랑으로 포장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의 건강을 위해 그가 담배와 이별하길 당당히 요구했다.

남편은 내가 보는 앞에서 담배를 동강이 내고, 담뱃갑도 구겨버리며 나의 사랑을 확인했다.

아버지가 금연을 하지 못해서 느꼈던 패배감이 승리감으로 바뀌는 감격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승리에 오히려 불안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승리의 감흥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 그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담배 부스러기, 라이터, 담배 냄새가 자꾸만 나의 모든 촉각을 곤두서게 했다.

화를 내고 사과하고, 화를 내고 당황해 하고, 화를 내고 묵묵부답으로 넘기면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때로는 싸움의 불씨가 되고 때로는 남편의 안식처가 되는 담배는 남편과 나의 사이에 계속 함께 했다.

그런데 그 담배가 이제 몸값을 더 받아야겠다. 당당히 뉴스에 나와 선전포고를 한다. 나만큼이나 그 오랜 연적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다는 듯 제 얼굴을 뻘뻘하게 내비친다. 착잡하다.

나에게도 남편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놓지 못할 남편을 알기에 나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시절 어머니를 생각하며

김미숙 | 유원ENG 이용환 사우 부인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먼저 떠난 어머니 생각에 슬픔이 몰려 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더 진하게 밀려 옵니다.

자식을 낳아 가르치고 잘 길러서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헤아리나 봅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할걸'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부족했던 마음, 쏟지 못한 정성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이 깊은 후회로 남습니다.

예전 어머니들께서는 굉장히 어렵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공무원의 아내였던 저희 어머니는 일곱 남매를 잘 가르치고 키우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덕담을 해주시며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인내와 끈기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적지 않은 염려가 됩니다. 정말 이런 식이어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정마다 염려가 많습니다. 치솟은 물가에 실업자가 줄을 잇고, 생계가 어려워 막막해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인내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며 힘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옛날 더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묵묵히 가시밭 길을 걸어 온 위대한 어머니들을 본받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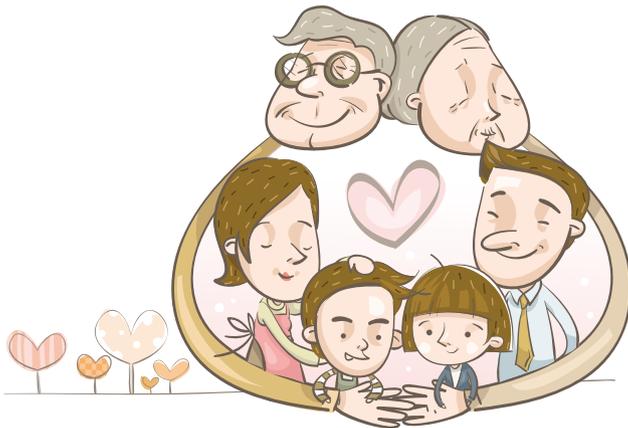
요즘은 어렵다고 해도 그때에 비하면 좋은 세상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울산은 현대중공업이라는 좋은 회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취하면 다른 이는 잃어야 하며, 내가 앓으면 다른 이는 서야 한다'고요.

그런 말을 생각하면 제가 그동안 많이 누렸던 것을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한 딸이 어머니의 사랑, 정성,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고, 되뇌일수록 부족함과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사우 여러분,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적에 꼭 효도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표현이라도 해보세요.

까마귀도 어미가 늙어 힘을 못쓰면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사자성어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현대건설기계 고객지원부 | 김상동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고향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이다. 요즘처럼 사드(THAAD) 문제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전에는 '성주'라는 지명보다 참외의 고향으로 더 유명했을 정도로 조용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호젓한 시골 마을이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옆으로는 '대가천'이라 불리던 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뒤편으로는 참외를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들판을 가득 채웠다. 그 비닐하우스 사이로 난 논둑을 뛰어 연을 날리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먹을 감았으며, 가을이면 메뚜기를 잡았다.

그곳에서 보낸 나의 유년 시절은 나의 기억 속에 한편의 영화같이 각인되어 있다. 그 곳을 난 초등학교 5학년, 12살에 떠나왔다. 그 떠남의 아쉬움이 남아 있기에 내 가슴 속의 추억은 더욱 더 또렷이 각인되는 것이라.

대가천이라는 공식 명칭보다는 그냥 '계곡'으로 불렸던 초등학교 뒤 냇가는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여름이면 따로 약속을 하지 않아도 아침부터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지금은 흔하디 흔한 워터파크의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 하나 없는 그 계곡이 뭐가 그리 재미있었는지, 여름날의 긴 해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물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그 덕에 별에 그을린 피부가 벗겨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물놀이가 지겨울 때면 물고기 잡이에 나섰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보에 있는 물길을 돌로 막아놓고 한참을 기다렸다. 그렇게 몇 십 분을 기다

리면 막아놓은 돌담 근처에 물고기가 몰려드는데, 그때 그 돌담을 무너뜨리면 보 밑으로 물고기가 한 번에 쓸려 내려가 반도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운이 좋은 날은 물고기를 양동이 한가득 잡곤 했다.

겨울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침밥만 먹으면 썰매를 손에 들고 두터운 옷을 꺼입은 아이들이 계곡으로 몰려

들었다. 그때 그 시절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추운 만큼 두텁게 언 얼음 위에서 썰매 타기, 팽이 돌리기, 연 날리기 등 지금은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동네 뒤편으로는 용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 하여 '용두산'이라 불리던 나지막한 산이 있었다. 숲이 그리 깊지도 않고,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뛰어 놀기에는 더 없이 좋았다.

산 한쪽에 큰 암석이 있었는데 평평하면서 경사가 적당히 있어 마치 미끄럼틀 같았다. 그 돌 위를 얼마나 아이들이 쓸고 내려왔는지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였다. 옷이 헤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돌 미끄럼틀 타는 것이 재미있었다.

탱자 나무 덩굴에서 탱자를 주워 탱자 싸움을 하고, 떨어진 밤송이에서 밤을 꺼내 구워 먹고, 메뚜기를 잡고, 솜바꼭질을 하는 등, 그저 자연과 함께 라면 더 없이 좋았던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다.

세월은 속절 없이 흐르고 흘러 불혹의 나이가 되고, 직장을 따라 먼 곳에서 살다 보니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가 더욱 더 짙어진다.

이제 일곱 살이 된 딸아이와 그 곳을 같이 거닐며 이야기해 주고 싶다. 여기가 아빠가 태어난 곳이라고, 아빠의 추억이 서린 곳이라고 말이다.



기관실 밖, 낯선 세상과의 만남

김용희 과장 | 현대삼호중공업 기장설계부

주마등 [走馬燈].

지난 1년간의 기억이 달리는 말처럼 머릿속을 스쳐 간다.

1년 전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 기만 했다. 앞으로 닥칠 1년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1년을 무사히 버텨낸 지금,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도 쏠살같이 흘러간 것 같다. 세월은 빠르고, 시간은 덧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단편적 순간들을 두서없이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닐까. 나는 힘들었지만, 또 소중했던, 내 인생에 다시없을 그 1년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꺼내 기록으로 남겨 본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1999년도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1999년, 나는 철없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당시 나는 한창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항해시대4'라는 PC게임을 즐겨했다.

이 게임은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배경으로 해양과 모험, 교역과 전투를 하는 게임이었다.

그 시절 이 게임에 빠진 학생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대항해시대'는 오대양 육대주를 항해하고 다니며,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 세계지리를 완벽하게 암기하도록 만들었던 '유익한' 게임이기도 했다.

나도 다섯 척의 상선을 이끌고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며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호로를 개척해 각종 특산품들을 사고파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그렇게 나는 화주(貨主)이자 선주(船主) 역할을 하며 창대한 바다를 꿈꾸고 있었다. 화물을 실어 나르는 상선(商船)의 개념을 어렵듯하게나마 접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물론, 10년 후 그런 상선을 만드는 일을 업(業)으로 삼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었다.

교박 10년이 지난 2009년, 나는 또 다시 창대한 바다를 꿈꾸며 현대삼호중공업에 입사를 했다.

처음 배치를 받은 곳은 기장설계부 배관팀이었다. 1년 후에는 기본팀으로 적(籍)을 옮겼고, 상선 기본설계와 해양 프로젝트 프로세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7년 정도 같은 업무를 하며 업무가 슬슬 손에 익어 가고 있을 무렵, 또 다시 다른 팀으로 파견을 가게 됐다.

이제 조금 업무에 적응을 했다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때는 2016년 3월이었고, 조선-해운산업의 계속된 위기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였다.

1년간의 파견이었지만 혼란스러운 회사 상황에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에게서는 미지의 세계였던 기관실 바깥으로 나가게 됐다.

7년의 경력이 무색할 만큼, 기관실을 제외하면 그것이 배의 어느 구역이든 나는 초보와 다름없었다.

다시 신입사원으로 돌아가는 기본이었다.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위에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 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였다.

새로운 팀에서는 탱커선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들어는 봤지만,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했 귀찮으로 흘러들었던 '하역 시스템(Cargo handling system)'과 같은 개념들이 실제 운행 중인 선박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선박이 존재하는 목적은 역시나 화물(Cargo)을 운반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던 시간이었다.

또한 LNG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즐거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 건조사양서(Building spec.)의 논리를 짚어내는 것은 상세 설계 엔지니어에게 그 프로젝트의 근원, 즉 계약 정신을 짚어가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건조사양서라는 기술적 유랑(流浪)을 따라가다 보면, 공정배관계장도(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를 작성하는 것이 단순한 캐드(CAD) 그리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것이 기능(Function)과 접근성(Access), 안전(Safety), 작동(Operation), 유지보수(Maintenance) 등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들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필요에 따라 서로 간섭할 수도 있는 것임을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돌아켜보면 많이 부족했던 시간이었다. 갑자기 '창대한 바다에 홀로 던져지고 나니 두렵고 겁도 났다.

같은 팀의 동료들에게 어린애처럼 의지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던 1년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고마운 동료들이 있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수없이 많았던 나의 부족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조금씩 채워갈 수 있었다.

'이 곳은 전쟁이지만 밖은 지옥이다.'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미생'에 나오는 명대사다. 나에게 지난 1년은 정말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선장설계4과에서 늘 의지가 되어 주었던 전우들이 있었기에, 그 전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 좌절되자 흥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에게는 이번 월드컵이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는 자평을 했다.

하지만 KBS 이영표 해설위원은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경험을 쌓는 곳이 아닌 실력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반박해 화제가 됐다.

1년간의 직무순환 경험이 선장설계 초보였던 나에게서는 분명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계 전문가로서 나의 고객이었던 동아탱커, 테나마리스(Thenamaris), 티케이(Teekay) 선주들에게 습작이 아닌 걸작을 선사하는 게 나의 임무이기도 했다.

과연 '나는 나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던가?' 자문해 보면 어떤 대답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만큼 뿌듯함도 그리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 시간이었다.

선장설계에서 보낸 그 치열했던 1년이 앞으로 펼쳐질 나의 회사 생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기장과 선장을 두루 경험한 엔지니어로서 지금보다 더 좋은 배를 짓겠다는 목표를 갖게 해준 시간이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지난 1년의 기억을 되새기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이제 나의 고향인 기장설계2과의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많이 성장했을 나의 기장설계 생활 시즌2를 기대해 본다.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든든한 나의 벗

조성민 |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누구나 소중한 친구가 한두명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같은 회사, 직장1부에서 근무하는 박지오 사우입니다.

이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인데, 가족, 형제보다 더 가까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오랜 친구입니다.

우리는 어리고 철없던 10대 시절을 함께 보냈고, 패기 넘치던 20대의 시작과 끝도 함께 했으며, 지금은 노련하고 성숙한 30대가 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와 함께 한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이 많지만, 제게는 그보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곁을 지키며 보낸 시간들이 더욱 소중한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고맙고 든든한 친구를 생각하며 몇 글자 적어봅니다.

20대 후반, 저는 우리 회사 입사를 준비하며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그때 같은 직종에 근무하고 있던 친구는 저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해주며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그 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친구도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려 노력했고, 마침내 친구도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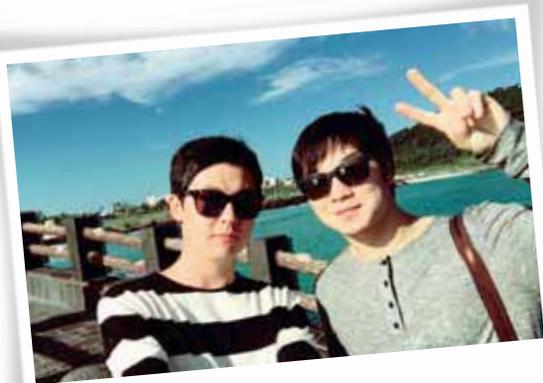
그런 친구와 저는 지금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덕분에 더 자주 그리고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퇴근길을 같이 걷고, 소주를 한 잔 하며 그 날의 일상을 서로 터놓고 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우위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혹은 우월하거나 여유가 있어도 서로를 대할 때 같은 눈 높이에서 바라보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친구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직장생활 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라는 걸 기억해! 친구여, 우리 우정 영원하자! 파이팅!”



눈



현대중공업 총무부 | 이현구

나의 눈은
나뭇잎과 벌레는 볼 수 있지만
생명의 형태는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눈은
그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 아이의 기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볼 수는 있지만
지난 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의 눈은
저 먼 곳까지 볼 수 있지만
내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의 눈은
가려진 검은 세상은 볼 수 있지만
벗겨진 하얀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눈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은 볼 수 없습니다.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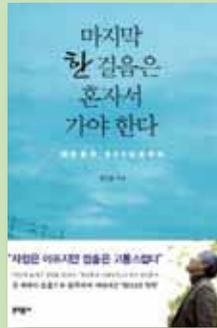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양정우)

평소 미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한 번씩 미술 전시회를 가면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아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매번 포기하곤 했습니다. 이 책은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과 함께 미술에 담긴 역사, 정치, 경제, 예술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총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 3권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유럽여행 전에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곧 다가오는 휴가 때 유럽으로 떠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꼭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김류운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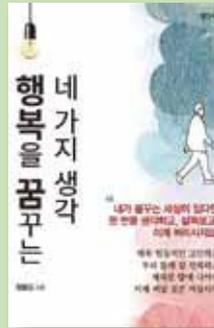


마지막 한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정진홍)

“사람은 아프지만 멈춤은 고통스럽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화려한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저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질주해왔지만 여전히 멈춰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배낭을 메고 산티아고로 떠납니다. 저자는 여행 중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순례길을 걷습니다. 발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걸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 봅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에 지친 사람들에게, 무더진 일상에 심표가 필요한 이들에게,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이 책이 삶의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경천
현대미포조선 노사협력부

3



행복을 꿈꾸는 네가지 생각 (정범길)

세상에는 타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사고와 인식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가 오로지 국민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개개인 모두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잘살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는 사우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김영화
현대삼호중공업 총무부

4



연애가 끝났다 (전보라)

이 소설에는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세 명의 여자가 등장해 각자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서로에게 연애상담을 해줍니다. 비록 책의 제목은 ‘연애가 끝났다’이지만, 책을 읽는 내내 연애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각자의 연애관이 대립하면서 일어나는 ‘스파크들’은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라, 마치 철학서를 읽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다. 한 번이라도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책 어딘가쯤에 자신이 했던 고민이 그대로 적혀 있어 흠칫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연애가 끝난 사람까지. 사랑을 꿈꾸는 모든 청춘들이 읽어 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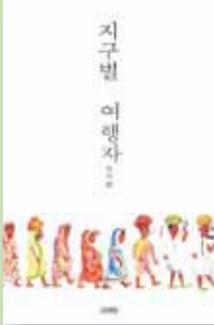
이충현
현대중공업 해양배관설계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wlgusdlf0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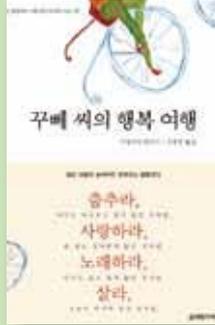


지구별 여행자 (류시화)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류시화 작가가 펴낸 인도 여행기입니다. 이 책에는 15년 넘게 인도를 오가며 작가 자신이 꿈꿔왔던 자유의 본질, 그리고 깨달음에 관한 사색과 명상들로 가득합니다. 여행 도중 만나는 기차와 별과 미래 사막, 그리고 그곳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저자가 보고 느낀 것들은 실소를 자아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세상이 어떠한가'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저자의 말처럼 사우 여러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당면한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우재설 대리
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설계부

6



꾸삐 씨의 행복 여행 (프랑수아 르로르)

정신과 의사가 행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책입니다. 주인공은 여행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수첩에 적고, 자신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나가며 행복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지금보다 늘 더 많고 좋은 것을 얻어야 행복해진다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다 보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삶,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더 많은 사우들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김민규 과장
현대미포조선 자재구매부

7



평범한 게 어때서 (로빈순)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좌절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내 인생 의미가 뭔지 아리송한 날도 있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누구에게라도 확인받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간 특별함에 가려져 평가절하된 '평범의 매력'을 발산하기에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책입니다. 평소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평범의 가치'를 다루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자극 없고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쌍둥이 엄마이자 맞벌이 주부인 저자가 쓴 보통 사람의 이야기. 평범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사우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박상아
(유대경테크)

8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김신회)

모두가 한 번쯤 보았을 네 컷 만화 '보노보노'가 서툰 어른에게 위로의 문장들을 전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린 시절, 마냥 재미와 웃음만 쫓던 보노보노의 대사가 어른이 된 지금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른 책이었는데,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보노보노의 말에 크게 공감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위로 받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솔직해지려 하면 할수록 자신만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아직은 버거운 서툰 어른들에게 다시 한 번 보노보노와 친구가 되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한동훈
현대중공업 총무부



지나치게 많이 나온 세금, 구제 방법은?

김 차장은 작년 초부터 부인 명의로 회사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업 후 3개월 정도는 직장 동료들이 도와준다며 자주 찾아왔지만, 그 후로는 매출이 그다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소득세로 1천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니다.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김 차장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국세청에서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과세 예고 통지서'라고 합니다.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라도 과세관청에 과세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과세 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은지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납세자에게 결정문을 통지해 줍니다.

• 세금 고충 처리 제도

세무서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근무하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고충 처리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납세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세금 감면 신청과 함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란, 납세 고지서에 대해 감면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납세 고지서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역시 납세 고지서 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심판청구란,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국세심판원장은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보다는 납세자 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 감사원 심사 청구

국세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과세부과)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해 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조세소송이란 세무서, 국세청과 세금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지만, 민사소송과 헌법소송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부르며, 이는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과세처분)가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심사 또는 심판청구)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통상 세금을 납부한 다음 소송으로 다투지만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02-746-4667

현실 뽀뽀작부부 2
by K.S.



십자말 풀이



가로 열쇠

- ① 인더스트리4.0 시대에 발맞춰 현대일렉트릭이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전력기기를 결합해 개발한 솔루션 사업을 통칭하는 브랜드. (p.24 참고)
- ②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 ③ 방어진노인복지관에서 실버 세대의 자아실현을 위해 지난 3월 걸성한 꽃바위 000. (p.43 참고)
- ④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뜻으로,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음을 이르는 말.
- ⑤ 일반 대중적인 상품에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부여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매출을 창출하는 트렌드. B+0000. (p.68 참고)
- ⑥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 없이 시신경이 파괴되다가,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안과 질환. (p.52 참고)

세로 열쇠

- ① 지난 4월 1일부로 현대중공업에서 사업 분리하여 2023년까지 글로벌 Top 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설장비 기업. (p.14 참고)
- ② 사람의 성품이나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를 의미하는 말.
- ③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낸 것으로, 올해 '현대중공업가죽은 사우 자녀들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를 상상해 그린 00을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 ④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국산 1호 전투함으로, 최근 34년간의 영해 수호 임무를 마치고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전시된 선박. (p.42 참고)
- ⑤ 오는 9월부터 국제해사기구에서 전 세계 모든 선박에 설치를 의무화 한 것으로, 선박 평형수의 이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와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p.30 참고)
- ⑥ 선박이 바닷물의 소금기에 산화돼 부식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정으로, 선박의 수려한 외관뿐만 아니라 수명을 좌우하는 이것. (p.22 참고)

퀴즈 당첨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박수철 현대중공업 시운전부

Hyundai 울산 뷔페권(2인)

문창준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송구병 현대중공업 조선품질경영1부

조효진 현대미포조선 원가관리부

후생시설 이용권(1만원)

이충현 현대중공업 해양배관설계부

김류운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한동훈 현대중공업 총무부

김재덕 현대중공업 대조립5부

우재설 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설계부

김상춘 현대건설기계 가공부

한광희 현대미포조선 도장2부

김재열 현대미포조선 선장설계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윤지영 현대일렉트릭 영업기획부

김점구 현대중공업 조선생산기획부

울산현대축구단 사인볼(1개)

신영진 현대중공업 NASR GTP 공사부

박현수 현대일렉트릭 배전반설계부

권영준 현대중공업 선실생산2부

윤광철 현대미포조선 선형의장부

박정대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서성진 세지산업

이재욱 현대중공업 해양배관설계부

예상현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OUTBACK 식사권

성충모 현대건설기계 가공부

김서현 현대중공업 선실설계부

조성환 현대미포조선 안전보건부

Hyundai 목포 뷔페권(2인)

배천일 현대삼호중공업 판넬조립부

사내매점 간식교환권(1만원)

조동형 현대삼호중공업 선각기술부

김형민 현대삼호중공업 선장설계부

김민용 현대삼호중공업 구조설계부

김호택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박헌재 현대삼호중공업 건조2부

천광식 현대삼호중공업 시운전부

김병훈 현대삼호중공업 의장 1부

호텔현대목포 케이크 교환권(1매)

김원석 현대삼호중공업 선항도장부

김덕검 현대삼호중공업 건조부

신안천일염

임길은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최봉열 현대삼호중공업 자재지원부

이주홍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윤영성 현대삼호중공업 계약운영부

추희원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지원부

지나호 정답



가로 1번의 정답을 6월 20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폴 세잔느(1839~1906), 사과와 프림로즈 꽃병이 있는 정물화(1890)

“역사상 유명한 사과가 세 개 있다.

첫째가 이브의 사과이고, 둘째가 뉴턴의 사과이며, 셋째는 세잔느의 사과이다.” - 모리스 드니

폴 세잔느(Paul Cézanne)는 너무 흔해서 아무도 그리지 않았던 사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매번 다른 사과를 화폭에 담아낸 화가입니다. 무미건조한 주제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장 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같은 사물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줄 알았던 폴 세잔느는 고전주의를 역사 속으로 밀어내고, 현대미술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 화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한 알의 사과로 파리를 놀라게 하리라.”

폴 세잔느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남다른 시선으로 개성 넘치는 예술 세계를 창조하며 흔한 사과 한 알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눈 앞을 스치듯 흘러가는 ‘그저 그런’ 풍경들에 지칠 법한 6월 한 해의 정가운데에서, 계절에 맞춰 변하는 바람의 온도, 나무의 색깔, 사람들의 표정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소소하지만 놀랍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과 함께 하는 보다 풍요로운 삶

현대로보틱스는 로봇 기술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과 미래를 열어가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과 도약에 힘쓰고 있습니다.

